

2007年 2月

碩士學位論文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朴 貞 子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A Sociolinguistic study of Korean Phonological Variation

2007年 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朴 貞 子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指導教授 강 희 숙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朴 貞 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1.2. 연구 대상과 방법	3
1.3. 선행 연구	4
제2장 연구 배경 및 자료 조사 방법	9
2.1. 연구 배경	9
2.2. 자료 조사 방법	12
2.2.1. 조사 과정 및 방법	12
2.2.2. 표본 선정	14
제3장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18
3.1. 어두 경음화	18
3.1.1. 어두 경음화 현상	18
3.1.2. 말투별 분석	21
3.1.3. 학년별 분석	23
3.1.4. 성별 분석	25
3.1.5. 사회 계층별 분석	26
3.2. 유기음화	28
3.2.1. 유기음화 현상	28
3.2.2. 말투별 분석	31
3.2.3. 학년별 분석	33
3.2.4. 성별 분석	34
3.2.5. 사회 계층별 분석	35

3.3. 위치 동화	36
3.3.1. 위치 동화 현상	36
3.3.2. 말투별 분석	40
3.3.3. 학년별 분석	41
3.3.4. 성별 분석	42
3.3.5. 사회 계층별 분석	44
3.4. 구개음화	45
3.4.1. 구개음화 현상	45
3.4.2. 말투별 분석	48
3.4.3. 학년별 분석	50
3.4.4. 성별 분석	52
3.4.5. 사회 계층별 분석	54
3.5. 자음군 단순화	55
3.5.1. 자음군 단순화 현상	55
3.5.2. 말투별 분석	59
3.5.3. 학년별 분석	61
3.5.4. 성별 분석	62
3.5.5. 사회 계층별 분석	64
3.6. /ㅎ/ 탈락	65
3.6.1. /ㅎ/ 탈락 현상	65
3.6.2. 말투별 분석	67
3.6.3. 학년별 분석	69
3.6.4. 성별 분석	70
3.6.5. 사회 계층별 분석	71

제4장 결론 및 제언 73

** 【參考文獻】

** 【附 錄】

<표 목차>

<표 2-1> 제보자의 성별 · 학년별 분포(명)	15
<표 2-2> 학력 · 직업 등급	16
<표 2-3> 사회 계층의 구분	17
<표 3-1> 말투별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	22
<표 3-2> 학년별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 (%)	24
<표 3-3> 성별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	25
<표 3-4> 사회 계층별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	27
<표 3-5> 말투별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	32
<표 3-6> 학년별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	33
<표 3-7> 성별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	34
<표 3-8> 사회 계층별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	35
<표 3-9> 말투별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	40
<표 3-10> 학년별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	42
<표 3-11> 성별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	43
<표 3-12> 사회 계층별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	44
<표 3-13> 말투별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	49
<표 3-14> 학년별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	51
<표 3-15> ‘해돋이’의 말투별 실현율(%)	52
<표 3-16> 성별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	53
<표 3-17> 사회 계층별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	54
<표 3-18> 말투별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	59
<표 3-19> 학년별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	61
<표 3-20> 성별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	63
<표 3-21> 사회 계층별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	64
<표 3-22> 말투별 /ㅎ/ 탈락의 변이 양상(%)	68
<표 3-23> 학년별 /ㅎ/ 탈락의 변이 양상(%)	69
<표 3-24> 성별 /ㅎ/ 탈락의 변이 양상(%)	70
<표 3-25> 사회 계층별 /ㅎ/ 탈락의 변이 양상(%)	71

ABSTRACT

A Sociolinguistic Study of Korean Phonological Variation

Park, Jeong-ja

Advisor: Prof. Kang, Hee-suk. Ph.D.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No languages are completely fixed and homogeneous. They look like externally homogeneous, but a variety of transitions have occurred according to personal conditions or social status.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various transitions shown in fortis of prefix, aspiration, long vowel law, simplification of consonants and " ㅎ " missing, and social variables,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cond grade and sixth grade.

Chapter 2 looks at sociolinguistic theory and background of the study, and organizes investigational process of data and the method.

Chapter 3 identifies phonological conditions of each phonological phenomenon and analyses correlations between social variables such as style of speech, age, sex and social positions, and transitional forms. As a result of it, this study found that the higher frequency of words and the higher grade the subjects were in, the higher rate of prefix fortis male students showed. In aspiration, dialects were retreating

because of influences of standard words learned. For ‘ㄷ’ palatalization, fricative sounds were more realized and they were used more by female students. In respect to location assimilation, much higher location assimilation was realized in everyday utterance because of formality. The simplification of consonants had much confusion because of an exceptional regulation that missing consonants vary in the same environment and therefore speakers tended to use simplify missing forms. For ‘ㅎ’ missing, the higher grade the subjects were in, the lower missing rate, which indicates that it can be corrected through education.

Chapter 4 presents some suggestions on effective pronunciation education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mentioned above. For effective pronunciation education, contents and organization of textbooks should be readapted and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identified and taught in consideration of influences of dialects. And standard pronunciation regulations should be demonstrated through large-scale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and methods through mass-media should be actively developed.

This study identifies types of non-standard transitional forms that have been considered as simple errors in Korean education and analyses the types in the phonological and sociolinguistic aspects to use the results for Korean knowledge education.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화자들의 국어 발음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변이와 사회적 변수인 말투, 성별, 연령, 사회 계층과의 상관관계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밝혀보려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일상적인 발화를 대상으로 음운 현상에서 나타나는 변이형들의 실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간 국어 교육에서 단순히 오류로만 처리하였던 비표준 변이형의 유형에 대한 국어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발음 교육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흔히 ‘채신머리가 없다¹⁾’라거나, ‘남자가 꼭 여자처럼 말한다’는 말들을 사용하곤 한다. 이러한 표현은 언어 사용에 있어 사회적인 신분이나 성별 등의 요인에 따라 어휘론적, 통사론적, 음운론적 선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개별 화자의 사회 계층, 연령, 성별, 발화 상황 등과 같은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다른 변이형을 사용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를 연구할 때는 의사 소통을 형성하는 ‘실제적’ 자료로서의 말과 사회적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순수언어학, 특히 변형 생성 문법에서는 언어가 사회적 소산임은 인정하면서도 실재로서의 언어가 아닌 ‘완전히 동질적인 언어 사회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청자와 화자’의 언어 능력을 분석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변이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든지 완전히 고정된 동질적인 언어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외적으로는

1) 마땅히 예의를 지켜야 할 자리와 때인데도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위엄이나 신망이 없는 것을 나타낼 때 흔히 "채신머리 없다"고 표현한다. 사람의 몸가짐과 관련해 '몸'을 뜻하는 '체(體)'를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이 '채신머리'는 '채신머리'로 표기하는 게 맞다. '채신'은 '처신(處身)'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한글학회, 우리말 바꾸기 471).

동질적 구성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상황적인 제조건에 따라 다양한 언어 변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내적 요인은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조건 등과 같은 언어적인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변이를 말한다. 언어 외적 요인은 다시 화자 간 변이와 화자 내 변이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자 간 변이는 연령, 성별, 사회계층 등 화자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특정한 변이형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은행원은 은행원의 말을, 법률가는 법률가의 말을, 아이는 아이의 말을, 상류층은 상류층의 말을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언어 변이의 존재는 개별 화자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화자 내 변이는 말투(speech style)²⁾에 따라 각기 다른 변이형이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말에 대한 주의력의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의 자음 관련 음운 현상, 즉, 어두 경음화, 유기음화, 위치 동화, /ㄷ/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등에서 발견되는 언어 내적 변이의 음운론적 조건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그 결과와 언어 외적 변이와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화 시 주의력의 정도, 성별과 연령의 차이, 사회계층의 차이가 변이형들의 실현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며, 그러한 변이형들이 사회적 변수들과 어떠한 체계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그간 국어 발음에서 나타나는 비표준 변이형을 ‘바로 잡아야 할 국어 오류’로 보는 규범적 시각을 배제하고 공식적 언어 현상에 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가 모어의 형성 시기와 일치하므로 발음 지

2) 개별 화자들이 말을 하는 상황이나 문맥(context)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언어 변이를 말투라고 한다. 말투는 Labov에 의해 개척되었는데 Labov는 면접에 의한 조사 상황을 여러 문맥(context)으로 조정하여 말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말투를 일상적인 말(casual speech), 격식적인 면접 상황에서 말하는 스타일을 긴장한 말(careful speech)로 구분하여 언어 변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격식적인 면접 상황을 통해서도 구절 읽기(reading passage), 단어 목록 읽기(word list), 최소 대답쌍 읽기(pair test)를 통해 여러 가지 말투(style)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특히 공식적인 상황에서 일상적 말투를 유도해내기 위해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고안한 것은 조사 방법론 중에서도 백미라 할 수 있다(이 익섭, 1994 참고).

도의 중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음운론적·사회언어학적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를 국어 지식 교육에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일정한 언어의 공시적 상태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식의 자료를, 어떤 사회에서, 어떤 제보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면담을 통해 이끌어 낼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타당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어 습득의 과정에 있는 2학년과 모어 습득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6학년 학생들의 일상적 발화에서 발견되는 음운 변이 현상을 사회언어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운의 변이에 대한 몇몇 연구(홍명식 2002, 이종희 2003, 김태순 2004 등)를 보면 음운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형의 목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음운 현상에서 나타나는 표준 변이형 외의 다양한 비표준 변이형을 모두 오류로 처리하는 지극히 규범적 관점으로만 제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변이를 언어 수행상의 우발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발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표준 변이형의 규칙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비표준 변이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비표준 변이형이 방언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인지, 다른 음운 현상의 유추에 의한 결과인지, 음운 변화의 결과인지, 혹은 사회적인 조건에 따른 결과인지 등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초등학교의 국어 교육에서는 교과서의 지도 내용 중 음성 언어, 특히 표준 발음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한 비표준 변이형을 유발하는 요인을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음운 변이를 연구할 때, 언어 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사회적 변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변이형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사회언어학적 연

구 방법은 순수 언어학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며, 여기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언어학적인 연구 방법을 따라 언어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변이형을 고찰하였다. 음운 변이를 관찰하기 위한 언어 변수로는 국어의 음운 현상 가운데서 비교적 분명한 언어 변이를 보이는 ‘어두 경음화, 유기음화, 위치동화, /ㄷ/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현상을 대상으로 삼아 자료를 수집하였고, 말투, 성별, 사회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변이형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연령별, 성별, 사회 계층별로 나누어 제보자를 선정한 다음,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연령, 사회 계층 말투에 따른 변이형의 빈도를 계량화하는 연구 방법을 따랐다.

자료 분석의 단계에서는 통계적 방법³⁾을 이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언어 변이의 사회적 분포를 수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언어 변이와 사회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일반화시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3. 선행 연구

국어를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으로 방언의 언어 변이와 친족어, 대우법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한성일, 2005: 2).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 ‘한국사회언어학회’의 창립과 1993년 ‘사회언어학’ 학회지의 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음운 변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는 크게 ‘통계적 방법’과 ‘사례분석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은 ‘사회 속의 언어를 연구’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언어 요소’와 ‘사회적 요인’ 중 어느 것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지는 서로 다르다. 통계적 방법은 언어 요소에 일차적 중요성을 두는 언어학적 접근이며, 사례 분석 방법은 사회적 요인에 일차적 중요성을 두는 인류학적 접근이다.

성별, 연령, 사회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변수에 따른 음운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기술한 연구로는 이미재(1988), 박경래(1993), 강희숙(1994), 전병철(1997), 김규남(1998), 이길재(2001), 전혜숙(2003), 이승규(2004), 이주행(1999), 홍미주(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미재(1988)는 경기도 화성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태도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과 변이형의 변화를 사회언어학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박경래(1993)는 충주 방언에서 진행 중인 모음과 이중 모음 체계의 변화, 움라우트의 퇴화 등의 현상을 나이, 성별, 학력, 말투 등의 사회적 요소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강희숙(1994)은 전남 장흥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변이형들이 세대, 사회계층, 성별과 같은 사회적 변수들과 어떠한 체계적 공동 변이를 형성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김규남(1998)은 전북 정해 마을의 지역어를 대상으로 움라우트, /k/ 구개음화, /h/ 구개음화, 유기음화 등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연령, 성별, 교류망과 관련하여 상관관계를 밝혔다.

또한, 이길재(2001)는 전이 지대인 전북 남원시 인월 언어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기음화, 모음 상승, /n/과 /l/의 탈락 등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성별, 연령, 교류망 등과 같은 사회적 변수와 관련하여 분석하였고, 사회 교류망 분석을 통해 진행 중인 언어 변화가 어떠한 경로로 확산되는지 보여주었다.

이어서, 전혜숙(2003)은 강원도 동해안 방언에 대하여 세대, 직업, 성 등의 사회적인 변수와 관련하여 언어 변이와 변화 현상을 고찰하였고, 이승규(2004)는 경기도 여주 지역의 언어 속에서 실현되는 음운 현상에 대해 세대와 학력, 성별, 사회 계층과 같은 사회적인 변수와 관련하여 언어 변화 현상을 고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언어학적 연구 성과들이 주로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학위 논문인 반면, 이주행(1999)과 홍미주(2002)의 연구는 일반 연구 논문이다. 이주행(1999)은 서울 지역 화자들을 대상으로 사회 계층별 언어의 특성을 발음 · 어휘 · 문장 · 담화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비표준어와 비속어는 상류층에서 하류층에 이룰수록 많이 사용하며, 중하류 계층이 외래어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중하류 계층이 사회 계층 중에서 지위에 대한 상승 욕구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홍미주(2002)도 대구 지역어를 대상으로 체언 어간말 (ㄷ), (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이어질 때의 실현 양상을 세대, 학력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주로 지역어를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변이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사회 계층에 따른 변이를 다룬 전형적인 사회 방언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는 유교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에 뿌리를 둔 우리 사회에서 서구와 같은 성격의 사회 계층을 설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홍명식(2002), 이종희(2003), 김태순(2004)등을 들 수 있다. 홍명식(2002)은 경기도 의왕시의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자음의 발음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정책의 수립과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의 개선, 교사의 연수, 학습 자료의 확충, 개인의 노력을 교육 방안으로 들고 있다.

이종희(2003)는 경기도 이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자음과 모음에 대한 발음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오류의 원인으로는 방언의 영향, 부모의 영향, 오류 발음에 대한 교정 기회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김태순(2004)은 충북 충주시의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받침 발음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도 방안으로는 지식을 활용한 발음 지도 방법과 훈련 모형을 들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물의 공통점은 발음 실태 조사를 모두 질문지법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 발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배제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다양한 변이형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분석도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변이의 음운론적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 국어 교육학에서 사회언어학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면 김재봉(1993), 윤명숙(1996), 이은희(2002, 2003)등을 들 수 있다. 김재봉(1993)은 국어 교육에 사회언어학 이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국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인 점을 고려할 때, 언어와 사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언어 교수는 불충분하므로 국어 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해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윤명숙(1996)은 청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와 /개/, /-니/를 언어적 변수로 하여 성별, 학년별, 성장지, 종교, 부의 학력과 직업, 형제·자매의 수 등의 사회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은희(2002)는 언어 정책적인 면에서 국어 교육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언어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규범의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규범의 선택에 앞서 언어 현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므로, 실제 사용될 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언어를 관찰하는 사회언어학의 태도야말로 국어 교육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은희(2003)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사회언어학적 내용이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는데, 그 중 ‘방언’과 ‘높임법’에 대해 지적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이은희는 교과서에서는 방언을 언어의 다양한 층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어휘 차원을 중심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변이형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언이라는 용어만 사용해서 사회 속에서의 언어의 모습을 다루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 높임법은 높임법의 체계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될 때의 청자와 화자,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언어학적 규범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언어학적 규범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시대와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⁴⁾

4) 예컨대 ‘하오’체나 ‘하계’체의 경우 젊은층에서는 거의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용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어 교육에는 실증적인 사회언어학적 연구 성과의 뒷받침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즉, 사회 방언 및 지역 방언, 청소년기의 은어 사용, 동일 연령 학습자들이 보이는 언어 사용상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언어 실태 조사가 기반이 되면서 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반해, 현재의 국어 교육은 정밀한 실태 조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증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언어학이야말로 국어 교육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연구 배경 및 자료 조사 방법

2.1. 연구 배경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자들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을 관찰·분석함으로써 언어와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언어학은 언어 행위를 사회 행위로 보고 언어와 사회적 요인과의 상호 관계,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 현상, 사회 계층에 따른 집단의 언어 사용과 언어 변이, 언어 사용의 상황 특성 등 사회와 관련된 언어의 다양성 및 변이성 등에 관한 실증적 경험적 사실들을 체계화하여 언어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박희석, 1989: 27). 이러한 사회언어학은 순수언어학이 화자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을 비판한 데서 비롯되어 1960년대 중반 Labov 등에 의해 본격적인 발달을 하게 되었다.

사회언어학은 연구 대상에 따라 거시 사회언어학(macro-sociolinguistics)과 미시 사회언어학(micro-sociolinguistics)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시 사회언어학은 연구 단위를 국가로 보며, 한 국가 또는 여러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어떤 언어 정책을 수립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미시 사회언어학은 다양한 사회적 변인, 즉 연령, 성별, 사회 계층, 말이 행해지는 때와 장소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의 변이를 연구한다.

언어 변이는 일정한 언어 사회나 사회 계층 집단 또는 같은 화자의 말에서 대체로 동일한 개념이나 사물을 말하는 서로 다른 대안적 표현 방식이 공시적으로 둘 이상 공존하여 쓰이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방언연구회, 2003: 256).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둘 이상 공존하는 언어 변이는 언어 내적인 요인과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언어 내적 변이가 언어의 내적인 동기에 의해 실현되는 언어 내재적 변이라고 한다면, 언어 외적 변이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실현되는 변이로서 사회적, 상황적, 지리적 요인 등 언어 외적인 사회적 변수가 언어적 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외적 변이는 다시 화자 내 변이와 화자 간 변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화자 내 변이는 발화가 생성되는 발화의 격식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화자의 말투(speech style)에 따라 실현된다. 화자 간 변이는 개별 화자의 지역, 성별, 연령 등이 다름에 따라 나타난다. 이 때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언어 변이를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변이를 사회 방언이라고 하며, 사회 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방언학은 사회언어학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이러한 변이와 변이를 유발하는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여기에서는 연령, 성별, 사회 계층과 같은 사회적 변수와 변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령과 언어 변이를 살펴보자.

연령과 언어 변이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이에 걸맞은 언어 형식을 쓰는, 즉 연령 단계(age grading)⁵⁾에 의한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 간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초래하는, 즉 연령차(age difference) 혹은 세대차에 의한 구분이다.

사람은 본원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따라 거기에 어울리는 적절한 행동과 언어의 양식을 취하게 된다. 흔히 ‘나잇값도 못한다’거나 ‘나잇값을 좀 하라’는 표현이 바로 연령 단계에 맞는 사회적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대표적 예일 것이다. 예컨대, 유년기에는 ‘아빠’라는 호칭을 쓰다가 청소년기 이상이 되면 ‘아버지’로 바꾸어 부른다거나, ‘누나’라고 부르다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 등이 연령 단계가 언어의 선택을 결정하는 본보기일 것이다.

이와 같이 ‘연령’이라는 사회적 변수와 언어 변이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는바, 청소년기에는 또래들끼리의 유대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말을 만들어⁶⁾ 쓰며, 어른들보다 비속어나 비표준형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5)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의 구분.

이익섭(1994)에 의하면 이러한 청소년층의 비표준형 선호의 실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흑인 사회의 조사에서 볼 수 있는데, 10~12세 사이의 소년들이 'He didn't do nothing'과 같은 이중 부정문의 사용을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또래들끼리 물려다니는 그들의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모로부터의 영향보다 또래들로부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지면서 위세형인 표준형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사회 규범의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사회적 압력에서도 벗어나게 되므로 표준형을 덜 쓰게 된다고 한다.

요컨대, 연령과 언어 변이를 보면 장소에 따라 옷을 골라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연령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연령이 언어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령의 차이, 즉 세대의 차이도 언어의 변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더욱 자명해진다.

언어의 변이는 연령이라는 조건 외에 성별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 언어 변이가 나타나는 예는 가족 호칭의 체계에서 살필 수 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화자의 성별에 따라 '언니' 또는 '누나'로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어휘적인 변이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죠?', '안 그래요?', '있지 않아요?' 등의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 확신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음운적인 변이를 보면 여성의 발화에서 'ㄹ'을 첨가하여 '안 오려다가[안 올래다가], 알아보려고[알아볼라구] 등으로 실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전혜영, 2004: 12).

한편, 언어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수 중 사회언어학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사회 계층이었다. 언어가 사회 계층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계층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어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계층이 어떤 어형을 통계적으로 더 높은 비

6) 지대(제대로), 섬(시험), 흐트(흐뭇하다), 지름신(일정한 물건을 사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하는 신) 등과 같은 통신 언어의 사용이 그 예이다.

율로 쓰는지를 말한다.

사회 계층이 언어의 변이에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Lobov(1966)의 뉴욕시 연구이다. Labov는 상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의 점원 일수록 모음 뒤의 [r]의 실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이를 검증해 보았다. 즉, Lobov는 뉴욕에서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세 개의 백화점(상류층이 이용하는 'Saks', 중류층이 이용하는 Macy's, 하류층이 이용하는 S. Klein)의 점원들에게 'Where are the women's shoes?'라고 질문하여 'Fourth floor'라는 답변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예측대로 상류층의 고객이 드나드는 백화점일수록 [r]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사회 계층에 따라 변이형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상을 통하여 사회언어학의 중요한 과제인 사회 속에서 언어의 변이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변수인 연령, 성별,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언어의 변이는 개별 화자가 속한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자료 조사 방법

2.2.1. 조사 과정 및 방법

일반적으로 사회언어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방언연구회, 2003: pp.147-149).

(1) 사회언어학의 연구 절차

연구 목적 수립 및 언어 변수의 확인 → 조사 방법의 확정과 체보자 선정 → 본 조사 → 자료 정리 및 분석 → 가설의 확인 및 언어 변이에 대한 해석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다음 일곱 가

지의 음운 현상을 언어적 변수로 선택하였고, 각각의 음운 현상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2) ㄱ. 어두 경음화

ㄴ. 유기음화

ㄷ. 위치 동화

ㄹ. 구개음화

ㄴ. 연음 법칙

ㅂ. 자음군 단순화

ㅅ. ‘ㅎ’ 탈락

이러한 음운 현상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이를 파악하기 위한 언어 조사는 Labov의 연구 방법을 따라 단어 읽기 말투(Word List Style : WLS), 문장 읽기 말투(Reading Style : RS), 면담 말투(Formal Stylee : FS), 일상적인 말투(Casual Style : CS)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문장 읽기의 내용은 ‘선녀와 나무꾼’의 내용을 약간 각색한 다음 구어체⁷⁾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읽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면담 말투에서 음운 변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림(부록2 참조)을 보여 주면서 어떤 장면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였다. 일상적인 말투에서는 음운 변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먼저 보았던 그림의 장면을 기억해 내는 데 몇 분이 소요되는지 기억력을 측정한다고 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관찰자의 모순(observer's paradox)⁸⁾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말투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변수와 발음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할 때 자료로 삼은 것은 일상적인 말투에서 관찰된 것이다.⁹⁾

7) 예컨대, “옛날 옛날 금강산 산기슭에 나이가 마흔이나 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가 그 예이다.

8) 관찰자의 모순이란 언어학자는 제보자들이 관찰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 말하는 것을 관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한다(이미재, 1988: 14).

9) 변이 연구의 대상은 말의 스타일 중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비격식체만이 그 대상이 된다.

조사 지점 및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Y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이며, 각각 1개 반을 선정하여 7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음 실태를 조사하였다. 대상을 선정하기 전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취지를 말하고 협조를 약속 받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 봉선동은 1990년대 들어 개발된 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의 95%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또한 인근에 체석산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군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동네이다. 유명한 사교육 기관이 많은 편이며 교육열도 매우 높다. Y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대체로 중류층 자녀들이 많다.

조사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이며, 자료 조사는 준비된 질문지를 토대로 직접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에 걸린 시간은 대체로 2학년은 한 사람당 1시간 ~ 1시간 10분, 6학년은 45분 ~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는 하루에 한두 명씩 미리 약속을 정하여 수업 시작 전에도 하였으나 주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학년은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자와 통화한 후 집에서 하기도 하였다. 또 2학년과 6학년 모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 시간씩 짬을 내어 면담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조사자가 학생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아는 아이도 여러 명 있었고 또 날마다 교실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조사자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없었다.

2.2.2. 표본 선정

사회언어학적 언어 연구에서는 어떤 언어 공동체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한다. 표본 추출 방법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과 판정 추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연구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에 따르게 되는 문제점으로 대표성의 문제나 자료 처리 과정에서 나

타나는 어려움 때문에 언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판정 표본 추출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강희숙, 1994: 34).

본 연구에서도 판정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조사에 응하게 된 자료 제공자의 수는 모두 76명으로¹⁰⁾ 이들을 사회적 변수인 사회 계층, 성별, 학년별로 재분류하였다.

우선 성별 · 학년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1> 제보자의 성별 · 학년별 분포(명)

학년별	성별		
	남	여	계
2학년	17	21	38
6학년	17	21	38
계	34	42	76

다음으로 사회적 변수로서 사회 계층¹¹⁾을 고려하였는바,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사회학자와 사회언어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Labov(1966)에서는 학력, 직업, 수입을, Trudgill(1974)에서는 학력, 직업, 수입, 주택의 양식, 거주지, 부친의 직업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기준으로 재산, 학력, 직업, 직업, 가문, 인격을 들고 있는데, 흔히 재산, 직업, 학력 정도가 사회 계층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 왔다(이익섭 1994: 85~90).

본고에서는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을 사회 계층의 준거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소득, 주택 양식과 같은 경제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구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의 준거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 직업 등이 언어 규범의 유지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10) 통계적인 작업에 있어서 표본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집단의 실체와 가까워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학과는 달리 사회언어학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과 언어적인 상황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Labov(1966)는 88명, Trudgill(74)는 60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어떤 사회 경제적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로써 사람들 사이에 높낮이, 즉 위계가 생기는데 이 때 그 위계가 같거나 비슷한 개인들의 집합체를 사회 계층(social stratification)이라고 한다(방언학 사전, 방언학 연구회: 207).

하였기 때문이다(박경래, 1993: 8, 강희숙, 1994: 64, 이주행, 1999: 54).

직업 분류는 홍두승(1982)의 ‘직업군에 따른 사회 계층 분류’와 통계청(www.nso.go.kr)의 ‘2005 한국의 사회 지표’를 근거로, 어머니의 학력은 6단계로 구분해 놓은 선행 연구(이종훈, 2002: 22)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¹²⁾의 두 가지 요인으로 점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각 내용을 다음 <표 2-2>와 같이 6단계로 분류하여 최저 2점부터 최고 12점까지 산출하였다.

<표 2-2> 학력 · 직업 등급

변수 평점	어머니의 학력(이종훈, 2002)	아버지의 직업(홍두승, 1982)
1	초등학교 졸업	무직, 단순 노무자, 식당 종업원
2	중학교 졸업	자영기술자, 운전기사, 목수
3	고등학교 졸업	공무원, 회사원(생산직), 소자영업
4	전문대학 졸업	교사, 과장, 6·7급 공무원, 중소기업 회사원
5	4년제 대학교 졸업	목사, 예술가, 5급 공무원
6	대학원 졸업	법관, 변호사, 교수, 한의사, 3급 공무원

사회 계층의 분류는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으로 산출된 점수에 따라 <표 2-3>과 같이 3개의 계층으로 나누었다.¹³⁾

12) 정지자(1983)에서는 아동의 언어 능력은 어머니 대화 형태,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순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모자 관계를 습득의 채널로 강조한다(이승복 역, 2001)는 것으로 볼 때, 아동의 언어 연구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이라는 변수를 고려함이 더 합리적이라 본다.

13) 1~4: 하류층, 5~10: 중류층, 10~12: 상류층으로 구분하였으나, 하류층과 상류층은 대상자가 없으므로 중류층을 다시 3개의 사회 계층으로 나누었다.

<표 2-3> 사회 계층의 구분

계 층	점수 범위	해당 인원 및 백분율(%)		
		2학년	6학년	계
중상류층	9~10	13(34.2)	19(50.0)	32(42.1)
중중류층	7~8	14(36.8)	11(29.0)	25(32.9)
중하류층	5~6	11(29.0)	8(21.0)	19(25.0)
계		38(100.0)	38(100.0)	76(100.0)

이상으로 표본 선정 방법 및 ‘학력·직업 등급’을 기준으로 사회 계층을 분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3장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3.1. 어두 경음화

3.1.1. 어두 경음화 현상

경음화 현상은 자음 /ㄱ/, /ㄷ/, /ㅂ/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평장애음 /ㄱ/, /ㄷ/, /ㅂ/, /ㅅ/, /ㅈ/가 이어지거나(국밥 → 국빡, 갈 데가 →갈때가), 어간의 말음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가 이어질 때(신고→신꼬) 평음 /ㄱ/, /ㄷ/, /ㅂ/, /ㅅ/, /ㅈ/가 경음 [ㄱ], [ㄷ], [ㅂ], [ㅅ], [ㅈ]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어두 경음화는 위와 같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 아니라, ‘자다>깎다, 꽃다>꽃다, 덕다>찍다, 석다>씩다’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통시적 음운 변화에 의한 현상으로서 사회적 혼란이 심했던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두드러졌으며 이 후, 시대를 내려올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진다.¹⁴⁾

이 절에서는 음운 현상으로 일어나는 어중 경음화가 아닌, 수의적인 현상인 어두 경음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두 경음화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ㄱ/ → [ㄱ]	A	B
ㄱ. /가시/ →	[가시]	~ [까시]
ㄴ. /구불구불/ →	[구불구불]	~ [꾸불꾸불]
ㄷ. /구기다/ →	[구기다]	~ [꾸기다]

14) 경음화는 이미 조선 초기 또는 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선 중기 이후 그 출현 빈도가 잦아져 마침내 오늘날의 경음화 어휘로 정착되었다(이미재, 1988: 67). 통시적인 음운 변화로서의 어두경음화는 15·16세기에 일어난 ‘구꺀다>꾸꺀다(꾸꺀다), 꺀다>꺀다(꺀다), 디르다>뵀르다(뵀르다), 달다>뵀다(뵀다) 등이 있으며, 17세기 이후에도 ‘자다>깎다, 꺀다>꺀다, 꽃다>꽃다, 달다>뵀다, 덕다>찍다 등이 있는데, 배주채(2003)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동작의 격렬함과 강한 어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ㄷ/ → [ㄸ]

- ㄱ. /두꺼비/ → [두꺼비] ~ [뚜꺼비]
- ㄴ. /두껍다/ → [두껍다] ~ [뚜껍다]

(5) /ㅂ/ → [ㅃ]

- ㄱ. /번데기/ → [번데기] ~ [뵤데기]
- ㄴ. /베끼다/ → [베끼다] ~ [뵤끼다]
- ㄷ. /반짝반짝/ → [반짝반짝] ~ [뵤짝뵤짝]

(6) /ㅅ/ → [ㅆ]

- ㄱ. /생머리/ → [생머리] ~ [쌩머리]
- ㄴ. /사납다/ → [사납다] ~ [싸납다]
- ㄷ. /새것/ → [새것] ~ [쌌것]

(7) /ㅈ/ → [ㅉ]

- ㄱ. /조각/ → [조각] ~ [쪼각]
- ㄴ. /작다/ → [작따] ~ [쪼따]
- ㄷ. /조금/ → [조금] ~ [쪼끔]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두의 자음은 A계열과 B계열로 실현되는데, B계열처럼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품사별로 보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등 광범위하게 실현된다. 이처럼 어두의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에 대해 정권의 교체나 국내외의 난 등 사회적 불안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을 들어 각박한 시대상의 영향으로 거칠어진 심성이 언어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¹⁵⁾ 의미를 강조하려는 심리적 이유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미재(1988)는 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경향 때문에 보다 강한 표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젊은 세대로 갈수록 경음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으며, 박동근(2000)은 ‘진하다/찼하다’ 등에서처럼 강조의 의미를 실현하거나 ‘힘이 세다/쌌다’, ‘숫자를 세다

15) 이주행(2003: 70)에서는 오늘날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국어 발음을 소홀히 하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삭막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세다'로 발음함으로써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를 회피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주행(1999)¹⁶⁾은 언어 변화를 주도하는 하중류 계층과 20대 이하 세대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시키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에 걸쳐 날이 갈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 서울대 언어학과 이호영(2005)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서울 토박이들의 경음화 선호도 연구'¹⁷⁾에서도 이주행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20대 남녀의 경음화 선호도는 약 65%에 가까웠으며, 어린 세대일수록 된소리 발음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개방적인 젊은 세대일수록 쉽게 받아 들여 자신이 전달하려는 정보를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현대 국어에 있어 어두 경음화는 사회의 삭막함이 언어에 반영된다기보다 빠른 발화¹⁸⁾ 속에서 의미를 강조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심리적인 요인, 즉 발화자의 의도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를 중심으로 /ㄱ/, /ㄷ/, /ㅈ/의 어두 경음화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확인된 음운 변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4) /ㄱ/ → [ㄱ]	A	B	C
ㄱ. /공짜/ →	[공짜]	~	[꽁짜]
ㄴ. /곶감/ →	[곶감]	~	[꽂감] ~ [꼭감]
(5) /ㄷ/ → [ㄷ]			
ㄱ. /땀다/ →	[땀다]	~	[땡따]

16) 서울 지역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7개의 사회계층으로 분류하여 음운, 어휘, 문장에 관한 계층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17) 서울대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서울토박이들의 경음화 선호도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2003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20~70세 사이의 남녀 15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0대 남녀의 경음화 선호도는 약 65%에 가까웠다. 반면, 30대에는 55%, 40대는 50%까지 낮아져 어린 세대일수록 된소리 발음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평소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 비해 강한 소리를 많이 쓴다는 통념을 설문 조사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국민일보 2005 - 10-07).

18) 김상준(1992: 267-312)에서는 3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뉴스 속도가 1분간 300음절에서 350음절로 나타났다고 한다.

ㄴ. /당긴다/ → [당긴다] ~ [땅긴다]

(6) /ㅈ/ → [ㅉ]

ㄱ. /죽제비/ → [죽제비] ~ [쪽제비]

ㄴ. /조끼/ → [조끼] ~ [쫂끼]

위의 B계열과 C 계열과 같이 어두의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부 방언에서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는바,¹⁹⁾ 본 연구 조사 대상자들의 발음에서 실현되는 어두 경음화가 사회적 요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3.1.2. 말투별 분석

화자의 말투에 따라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19) 일반적으로 어두 경음화는 남부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 방언에서는 중앙어에서 평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경음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까:지(가지), 까죽(가죽), 깔앙그다(가라앉다), 꺽정(걱정), 따독거리다(다독거리다), 짤잘허다(자잘하다), 쩌:까(조금) 등이 있다(방언연구회, 2003: 72).

<표 3-1> 말투별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말투 학년 변이 형	단어 읽기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일상적인 말투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공 짜	ㄱ	5.3	10.5	7.9	47.4	34.2	40.8	36.8	18.4	27.7	78.9
	ㄱ	94.7	89.5	92.1	52.6	65.8	59.2	63.2	81.6	72.3	21.1	28.9	25.0
꽃 감	ㄱ	7.9	10.5	9.2	15.8	23.7	19.7	18.4	18.4	18.4	28.9	44.7	36.8
	ㄱ	92.1	89.5	90.8	84.2	76.3	80.3	81.6	81.6	81.6	71.1	55.3	63.2
닭 다	ㄷ	0.0	0.0	0.0	13.2	13.2	13.2	26.3	15.8	21.1	55.3	63.2	59.2
	ㄷ	100.0	100.0	100.0	86.8	86.8	86.8	73.7	84.2	78.9	44.7	36.8	40.8
당기다	ㄷ	0.0	0.0	0.0	2.6	0.0	1.3	7.9	18.4	13.2	10.5	23.7	17.1
	ㄷ	100.0	100.0	100.0	97.4	100.0	98.7	92.1	81.6	86.8	89.5	76.3	82.9
족제비	ㅈ	0.0	0.0	0.0	0.0	0.0	0.0	0.0	2.6	1.3	0.0	21.1	10.5
	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4	98.7	100.0	78.9	89.5
조 끼	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7	11.8
	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6.6	88.2
계	경음	2.2	3.5	2.9	13.2	11.9	12.5	14.9	12.3	13.6	28.9	41.2	35.1
	평음	97.8	96.5	97.1	86.8	88.1	87.5	85.1	87.7	86.4	71.7	58.8	64.9

위의 <표 3-1>에서 말투의 유형과 어두 경음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말투에서 어두경음화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장 읽기 말투가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이 면접 상황에서의 면담 말투, 단어 읽기 말투의 순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즉, 문장 읽기 말투에서 나타나는 경음화 실현율이 면접 상황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Labov(1972)의 뉴욕시 연구와 Trudgill(1974)의 Norwich시 연구에서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워질수록 비표준형을 많이 쓰고 격식 말투에 가까울수록 표준형을 많이 쓴다고 보고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읽을거리²⁰⁾를 제공함으로써 내용에 몰입하게 되어 면접 상황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하여 읽어 보라고 함.

위의 <표 3-1>에서 보듯이 ‘공짜’와 ‘닭다’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죽제비, 조끼’에서는 매우 낮게 실현되고 있는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 생활과 관련이 깊고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어두 경음화 실현율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재(1993: 34)도 친숙하고 화자의 욕구가 강한 것일수록, 또 사용 빈도가 잦을수록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다.²¹⁾

한편, 박동근(2000)은 된소리로 발음함으로써 본래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기능의 예로 ‘꾸정물, 껌추, 껌보, 싸이비’ 등을 들고 있는데, 이미재(1993: 5)는 북한에서 ‘적’이라는 개념의 ‘원수’를 ‘원썩’²²⁾로 새 어휘를 만들어 구별하는 것도 부정적 의미로서의 된소리가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3.1.3. 학년별 분석

‘연령’이라는 사회적 변수와 언어 변이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는데, 청소년기에는 또래들끼리의 유대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 쓰며, 어른들보다 비속어나 비표준형을 많이 쓴다. 이러한 경향이 어두 경음화의 실현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화자의 학년에 따라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21) ‘김밥, 보리밥, 쌀밥’ 중에서 오직 ‘김밥’만 [김밥]이 [김빡]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즐겨 사용된다.

22) 이미재(1993: 5)에서는 ‘원수’를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198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한다.

원수: 김일성 수령

원썩: 미제 제국주의 원수들

<표 3-2> 학년별 어두 경험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형	학 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공 짜	ㄱ	78.9	71.1	75.0
	ㄴ	21.1	28.9	25.0
곶 감	ㄱ	28.9	44.7	36.8
	ㄴ	71.1	55.3	63.2
답 다	ㄷ	55.3	63.2	59.2
	ㄸ	44.7	36.8	40.8
당긴다	ㄷ	10.5	23.7	17.1
	ㄸ	89.5	76.3	82.9
족제비	ㅈ	0.0	21.1	10.5
	ㅉ	100.0	78.9	89.5
조 끼	ㅈ	0.0	23.7	11.8
	ㅉ	100.0	76.3	88.2
계	경음	28.9	41.2	35.1
	평음	71.7	58.8	64.9

<표 3-2>에서 보듯이 ‘공짜’의 경우 2학년과 6학년이 각각 78.9%와 71.1%로 가장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짜’를 제외한 다른 어휘에서는 6학년이 2학년에 비해 더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 특히, ‘족제비, 조끼’의 경우 2학년은 어두 경험화가 실현되지 않는 데 반해, 6학년은 각각 21.1%, 23.7%의 실현율을 보인다.²³⁾ 이러한 현상은 같은 말을 씌으로써 또래들과의 유대감을 획득하려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²⁴⁾

23) 이러한 청소년층의 비표준형 선호의 실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흑인 사회의 조사에서 볼 수 있다. 10~12세 사이의 소년들이 비표준형을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파라치아 지역의 조사에서도 12세 이하의 소년층이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여 주었다(이익섭, 1994 참고).

24) 학령기 어린이는 또래들, 특히 동성의 또래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 발달을 “패거리 시기(gang age)”라고 한다. 아이는 속어를 쓰거나 또래 집단의 말투를 써서 그 집단에 수용되려 한다(이승복 역, 2001: 에서 재인용).

어린이들은 보통 동질성을 갖도록 강한 제약을 받는데 그들은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배운다. 이를 또래 압박(peer pressure)이라 한다(이홍수 외 역, 2005: 76에서 재인용).

3.1.4. 성별 분석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표준어를 쓰려는 경향이 높으며 젊은 여자일수록 여성스럽고 교양 있게 보이려고 우아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익섭(1994)은 Fisher(1958)의 연구 결과 표준형을 더 자주 쓰는 아이들 중에는 여자 아이들이 10 : 5로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이 국어 화자들의 경음화 실현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성별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 성별 형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남	여	남	여	남	여
		공 짜	ㄱ	88.2	71.4	82.4	61.9
	ㄱ	11.8	28.6	17.6	38.1	14.7	33.3
꽃 감	ㄱ	41.2	19.0	58.8	33.3	50.0	26.2
	ㄱ	58.8	81.0	41.2	66.7	50.0	73.8
답 다	ㄷ	52.9	57.1	82.4	47.6	67.7	52.4
	ㄷ	47.1	42.9	17.6	52.4	32.3	47.6
당긴다	ㄷ	11.8	9.5	41.2	9.5	26.5	9.5
	ㄷ	88.2	90.5	58.8	90.5	73.5	90.5
죽제비	ㅈ	0.0	0.0	29.4	14.3	14.7	7.2
	ㅈ	100.0	100.0	70.6	85.7	85.3	92.8
조 끼	ㅈ	0.0	0.0	52.9	0.0	26.5	0.0
	ㅈ	100.0	100.0	47.1	100.0	73.5	100.0
계	경음	32.3	26.2	57.9	27.8	45.1	27.0
	평음	67.7	73.8	42.1	72.2	54.9	73.0

<표 3-3>을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여성의 표준형 선호가 학생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에서도 나타난다. ‘공짜’에서는 남녀 모두 높은 어두 경음화의 실현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남학생 화자가 18.6% 더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어휘에서도 모두 남학생 화자가 여학생 화자보다 7.5~26.5% 높은 실현율을 보이며 특

히, 6학년 남학생 화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남자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중시하여 그것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투리를 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다움의 표현이 말에 반영되어 강한 표현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사춘기, 즉 발달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심리도 구어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3.1.5. 사회 계층별 분석

부모의 사회 계층에 따라 자녀가 받는 교육의 기회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연구에서도 가계 소득과 자녀의 수학 능력 시험 점수가 정비례하며, 부모의 소득과 직업이 자녀의 대학 진학률과 직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²⁵⁾ 그러면 사회 계층과 어두 경음화 실현은 어떤 관계가 있는 살펴보기로 한다. 화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4>와 같다.

25)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는 3~4%에 불과했지만 부모가 4년제 일반대학 졸업이면 28%, 대학원 이상 시 41.4%로 7~10배 가량 차이가 났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대학 진학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가 고위 임직원·전문적인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3%인 데 비해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근로자, 단순노무직은 각각 7.3%, 6.6%, 8.6%에 불과했다(부산일보 2006-08-19).

<표 3-4> 사회 계층별 어두 경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 형태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공 짜	ㄱ	69.2	78.6	90.9	63.2	72.7	87.5	65.6	76.0	89.5
	ㄷ	30.8	21.4	9.1	36.8	27.3	12.5	34.4	24.0	10.5
꽃 감	ㄱ	15.4	7.1	72.7	31.6	54.5	62.5	25.0	28.0	68.4
	ㄷ	84.6	92.9	27.3	68.4	45.5	37.5	75.0	72.0	31.6
닭 다	ㄷ	7.7	78.6	81.8	52.6	81.8	62.5	34.4	80.0	73.7
	ㄱ	92.3	21.4	18.2	47.4	18.2	37.5	65.6	20.0	26.3
당긴다	ㄷ	0.0	21.4	9.1	10.5	36.4	37.5	6.3	28.0	21.1
	ㄱ	100.0	78.6	90.9	89.5	63.6	62.5	93.7	72.0	78.9
족제비	ㅈ	0.0	0.0	0.0	21.1	27.3	12.5	12.5	12.0	5.2
	ㄷ	100.0	100.0	100.0	78.9	72.7	87.5	87.5	88.0	94.8
조 끼	ㅈ	0.0	0.0	0.0	15.8	36.4	25.0	9.4	16.0	10.5
	ㄷ	100.0	100.0	100.0	84.2	63.6	75.0	90.6	84.0	89.5
계	경음	15.4	30.9	42.4	32.5	51.5	47.9	25.5	40.0	44.7
	평음	84.6	69.1	57.6	67.5	48.5	52.1	74.5	60.0	55.3

<표 3-4>에서 보듯이 ‘족제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중중류층과 중하류층에 비해 중상류층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의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중상류층에 속하는 화자들은 교사나 공무원의 자녀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부모가 직업의 특성상 말을 점잖고 품위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파악된다.

또한 사용 빈도가 낮은 ‘당긴다, 족제비, 조끼’는 사회 계층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는 반면, 사용 빈도가 높고 친숙한 단어인 ‘공 짜, 꽃감’은 모두 중하류층이 높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의 방향이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빠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주행(2003)의 연구에서 어두 경음화의 주도 사회 계층을 하중류층이라고 밝힌 것과도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어두 경음화의 실현은 언어 외적인 요인인 화자의

심리, 상황, 태도를 반영하며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일수록, 격식적인 말투보다는 일상적인 말투에서, 2학년보다는 6학년이, 여학생 화자보다는 남학생 화자가,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요인이 모두 경음화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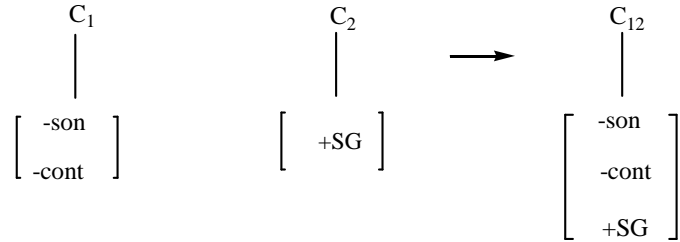
특히 6학년 남학생 화자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또래 집단에 수용되고자 하는 유대감, 혹은 남성다움의 표현이 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두 경음화 현상이 시대를 내려올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진 것을 볼 때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경음은 예사말에 비해 품위 있는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언어는 심성도 거칠어지게 하므로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3.2. 유기음화

3.2.1. 유기음화 현상

유기음화는 /ㄱ/, /ㄷ/, /ㅂ/, /ㅈ/의 앞이나 뒤에 /ㅎ/가 올 때 유기음 [ㅋ], [ㅌ], [ㅍ], [ㅊ]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유기음화는 평음에 /ㅎ/가 가진 [+asp]자질이 /ㄱ/, /ㄷ/, /ㅂ/, /ㅈ/에 첨가되어 유기음 [ㅋ], [ㅌ], [ㅍ], [ㅊ]가 되는 융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규칙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유기음화 규칙(강옥미, 2003: 509)



현대 국어에서 유기음화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나 음절 경계, 어절과 어절 사이에서도 실현된다. 이는 역행적 유기음화가 음성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기음화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 /ㅎ/ + /ㄱ/, /ㄷ/, /ㅂ/, /ㅈ/

- ㄱ. /놓고/ → [노코]
- ㄴ. /싫다/ → [실타]
- ㄷ. /놓지/ → [노치]

(9) /ㄱ/, /ㄷ/, /ㅂ/, /ㅈ/ + /ㅎ/

- ㄱ. /각하/ → [가카]
- ㄴ. /못하다/ → [모타다]
- ㄷ. /맞히다/ → [마치다]
- ㄹ. /밥하고/ → [바파고]
- ㅁ. /꽃 한 송이/ → [꼬탄송이]
- ㅂ. /이루어지도록 해야/ → [이루어지도록ैया]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ㅎ/가 선행할 때는 필수적으로 유기음화가 실현되는데, 이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와의 결합이 매우 긴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처럼 /ㅎ/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음운론적 조건이 갖추어져도 유기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ㄱ/, /ㄷ/, /ㅂ/, /ㅈ/ + /ㅎ/에 나타나는 유기음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 발음법>²⁶⁾에는 유기음화를 4장 12항의 1에 규정해 두고 있는데²⁷⁾ 유기음화는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활용이나 곡용, 파생과 합성어의 모든 경우에 실현된다. 그러나 전남 방언에서는 /ㄱ/, /ㄷ/, /ㅂ/, /ㅈ/ + /ㅎ/의 환경에서도 /ㅎ/가 약화되거나 탈락되어 나타나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예컨대 ‘갑갑하다[까까바다], 법학[버박]’ 등에서 /ㅎ/가 탈락됨으로써 유기음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유기음화와 관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확인된 음운 변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B
(9)	ㄱ. /육학년/	→	[유강년]	~ [유강년]
	나. /입학/	→	[이팍]	~ [이박]
(10)	ㄱ. /굽하기/	→	[고파기]	~ [고바기]
	나. /말형/	→	[마텅]	~ [마 텅]
(11)	ㄱ. /정직한/	→	[정지칸]	~ [정지간]
	나. /술직하게/	→	[술찌카게]~	[술찌가게]

위와 같은 역행적 유기음화의 환경에서, A계열은 유기음화가 실현된 것이고, B계열은 /ㅎ/가 탈락하여 유기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B계열에서 보듯이 유기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를 강희숙(1994: 98)에서는 두 구성 요소 사이에 개재하는 형태소 경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

26) <표준 발음법>은 현행 <표준어 규정>의 제2부에 제시되어 있으며 모두 7장 30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7) 제12항 : ‘ㅎ(ᄃᆞ, ᄃᆞ)’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붙임 1] 받침 ‘ㄱ(ㄱ), ㄷ, ㅂ(ㅃ), ㅈ(ㅉ)’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ㅌ, ㅊ]로 발음한다.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9ㄱ~ㄴ)은 한자어의 경우로서 ‘육+학년, 입+학’으로, (10ㄱ~ㄴ)은 ‘곱+하기, 만+형’으로 형태소 내부에 경계가 놓임으로써 유기음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²⁸⁾ (11ㄱ~ㄴ)의 ‘정직+하ㄴ, 솔직+하ㄴ’의 경우 어근과 ‘-하’의 경계 의식이 뚜렷하여 /ㅎ/가 약화되어 유기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²⁹⁾

이 절에서는 전남 방언의 성인 화자들에게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 유기음화가 (강희숙, 1994: 104)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발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기음화와 사회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3.2.2. 말투별 분석

화자의 말투에 따라 나타나는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5>와 같다.

28) 다른 예로 한자어로는 교육#학[교육악], 법#학[버박], 합성어로는 발#흙[바득], 박#헤일(인명)[바개일] 등을 들 수 있다.

29) /ㅎ/는 조음 위치가 뚜렷하지 못하여 자음성이 약하다. 따라서 단어의 첫소리가 아닌 자리에서는 쉽게 탈락하거나 약화된다.

<표 3-5> 말투별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말투 변이 형	단어 읽기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일상적인 말투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육학년	ㄱ	94.7	97.4	96.1	94.7	97.4	96.1	86.8	94.7	90.8	81.6	86.8	84.2
	ㄱ	5.3	2.6	3.9	5.3	2.6	3.9	13.2	5.3	9.2	18.4	13.2	15.8
입학	ㄷ	97.4	100.0	98.7	100.0	100.0	100.0	97.4	100.0	98.7	97.4	100.0	98.7
	ㅅ	2.6	0.0	1.3	0.0	0.0	0.0	2.6	0.0	1.3	2.6	0.0	1.3
곱하기	ㄷ	97.4	97.4	97.4	94.7	94.7	94.7	97.4	94.7	96.1	92.1	97.4	94.8
	ㅅ	2.6	2.6	2.6	5.3	5.3	5.3	2.6	5.3	3.9	7.9	2.6	5.2
말형	ㅌ	81.6	97.4	89.5	65.8	86.8	76.3	55.3	97.4	76.4	52.6	94.7	73.7
	ㄷ	18.4	2.6	10.5	34.2	13.2	23.7	44.7	2.6	23.6	47.4	5.3	26.3
정직한	ㄱ	97.4	100.0	98.7	97.4	100.0	98.7	97.4	100.0	98.7	97.4	100.0	98.7
	ㄱ	2.6	0.0	1.3	2.6	0.0	1.3	2.6	0.0	1.3	2.6	0.0	1.3
솔직하게	ㄱ	97.4	100.0	98.7	94.7	92.1	93.4	94.7	94.7	94.7	92.1	94.7	93.4
	ㄱ	2.6	0.0	1.3	5.3	7.9	6.6	5.3	5.3	5.3	7.9	5.3	6.6
계	Y	94.3	98.7	96.5	91.2	95.2	93.2	88.2	96.9	92.6	85.5	95.6	90.6
	N	5.7	1.3	3.5	8.8	4.8	6.8	11.8	3.1	7.4	14.5	4.4	9.4

Y=유기음화 적용, N=유기음화 미적용

위의 <표 3-5>에서 보듯이 모든 어휘, 모든 말투에 걸쳐 골고루 높은 유기음화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곱하기’, ‘정직한’, 솔직하게’는 어근에 접사 ‘-하’가 결합된 구성으로서 말투에 관계없이 거의 90~95% 이상 유기음화가 실현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여서 단일 형태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학년, 말형’에서는 일상적인 말투에서는 84.2%, 73.7%로 실현율이 다른 어휘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말형’은 교과 과정에서 유기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배우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는 일이 없으므로 낮은 실현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육학년’을 [유강년]으로 실현하는 것은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학년을 말할 때 일학년[이랑년], 이학년[이항년], 삼학년[삼항년], 사학년[사항년], 오학년[오항년]까지는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유강년]으로 실현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6학년이 모든 말투에서 2학년

보다 높은 유기음화 실현율을 보이는 것은 학습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³⁰⁾

3.2.3. 학년별 분석

화자의 학년에 따라 나타나는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학년별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

표 제 어	변이형	학 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육 학 년	ㄱ	81.6	86.8	84.2
	ㄷ	18.4	13.2	15.8
입 학	ㅍ	97.4	100.0	98.7
	ㅂ	2.6	0.0	1.3
곱 하 기	ㅍ	92.1	97.4	94.8
	ㅂ	7.9	2.6	5.2
말 형	ㅌ	52.6	94.7	73.7
	ㄷ	47.4	5.3	26.3
정 직 한	ㄱ	97.4	100.0	98.7
	ㄷ	2.6	0.0	1.3
솔직하게	ㄱ	92.1	94.7	93.4
	ㄷ	7.9	5.3	6.6
계	Y	85.5	95.6	90.6
	N	14.5	4.4	9.4

<표 3-6>에서 보듯이 학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어휘에서 90% 이상 높은 유기음화 실현율을 보이고 있으나, ‘육학년’은 84.2%, ‘말형’은 73.7%로 다른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말형’의 경우, 6학년은 다른 어휘와 거의 비슷한 실현율을 보이고 있지만, 2학년에서는 52.6%의 낮은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어휘들은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여서 자연스럽게 표준 발음이 습득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말형’의 경우는 사용 빈도가 낮을 뿐만 아

30) 3-2 말하기 · 듣기 교과서 <국화, 말형, 입학, 맞히다, 많고, 괜찮다>, 5-2 말하기 · 듣기 교과서 <꿈다, 옹고> 등의 내용을 학습하였다.

나라, 저학년은 형태음운론적인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음가를 모두 충실하게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ㅎ/가 탈락되어 [마덩]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6학년의 경우에는 이미 교과 과정에서 두 번의 교육(각주 30 참고)으로 음운 규칙을 습득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고 할 수 있다.

3.2.4. 성별 분석

화자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성별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학년 이 성별 형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육 학 년	ㄱ	82.4	81.0	82.4	90.5	82.4	85.8
	ㄱ	17.6	19.0	17.6	9.5	17.6	14.2
입 학	ㅍ	100.0	95.2	100.0	100.0	100.0	97.6
	ㅍ	0.0	4.8	0.0	0.0	0.0	2.4
곱 하 기	ㅍ	88.2	95.2	94.1	100.0	91.2	97.6
	ㅍ	11.8	4.8	5.9	0.0	8.8	2.4
만 형	ㅌ	29.4	71.4	100.0	90.5	64.7	81.0
	ㄷ	70.6	28.6	0.0	9.5	35.3	19.0
정 직 한	ㄱ	100.0	95.2	100.0	100.0	100.0	97.6
	ㄱ	0.0	4.8	0.0	0.0	0.0	2.4
솔직하게	ㄱ	88.2	95.2	94.1	95.2	91.2	95.2
	ㄱ	11.8	4.8	5.9	4.8	8.8	4.8
계	Y	81.4	88.9	95.1	96.0	88.3	92.5
	N	18.6	11.1	4.9	4.0	11.7	7.5

<표 3-7>에서 보듯이 남학생 화자와 여학생 화자가 모든 어휘에서 골고루 높은 유기음화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³¹⁾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체로 여학생 화자가 남

31) 강희숙(199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층 남성의 57.8%, 여성의 74.4%가 유기음으로 실현하였다.

학생 화자보다 높은 실현율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이 표준어를 선호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3.2.5. 사회 계층별 분석

화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표 3-8> 사회 계층별 유기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학년 사회 계층 변이 형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육 학 년	ㄱ	84.6	92.9	63.6	89.5	81.8	87.5	87.5	88.0	73.7
	ㄷ	15.4	7.1	36.4	10.5	18.2	12.5	12.5	12.0	26.3
입 학	ㅍ	100.0	100.0	90.9	100.0	100.0	100.0	100.0	100.0	94.7
	ㅂ	0.0	0.0	9.1	0.0	0.0	0.0	0.0	0.0	5.3
곱 하 기	ㅍ	100.0	100.0	72.7	100.0	90.9	100.0	100.0	96.0	84.2
	ㅂ	0.0	0.0	27.3	0.0	9.1	0.0	0.0	4.0	15.8
말 형	ㅌ	76.9	42.9	36.4	89.5	100.0	100.0	84.4	68.0	63.2
	ㄷ	23.1	57.1	63.6	10.5	0.0	0.0	15.6	32.0	36.8
정 직 한	ㄱ	100.0	100.0	90.9	100.0	100.0	100.0	100.0	100.0	94.7
	ㄷ	0.0	0.0	9.1	0.0	0.0	0.0	0.0	0.0	5.3
술직하게	ㄱ	100.0	100.0	72.7	94.7	100.0	87.5	96.9	100.0	78.9
	ㄷ	0.0	0.0	27.3	5.3	0.0	12.5	3.1	0.0	21.1
계	Y	93.6	89.3	71.2	95.6	95.4	95.8	94.8	92.0	81.6
	N	6.4	10.7	28.8	4.4	4.6	4.2	5.2	8.0	18.4

위의 <표 3-8>에서 평균 실현율이 전체적으로 중상류층과 중중류층에 비해 중하류층이 낮은 실현율을 보이는 것을 볼 때, 화자의 사회 계층과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학년 화자는 모든 어휘에서 계층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비해 2학년 중하류층 화자의 유기음화의 실현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라는 변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³²⁾ 학력의 분포를 볼 때 중하류층

화자들의 어머니는 중상류층이나 중중류층 화자들의 어머니들보다 학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하류층 화자들은 어머니의 방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방언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유기음화의 실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체로 두 가지의 원인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의 영향으로 표준형인 유기음화를 학습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는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미재(1988: 90)에서도 청소년들의 말의 속도는 노년층보다는 2~3배, 그리고 중년층에 비하여 1~2배 빨라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절의 연결 속도가 빠르게 됨에 따라 단어의 경계가 약화되고, 이는 바로 음절 경계로 대치됨으로써 유기음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²⁾

3.3. 위치 동화

3.3.1. 위치 동화 현상

음절 경계를 사이에 두고 특정 자음이 인접한 자음의 소리 특징을 닮아가는 현상을 자음 동화³⁴⁾라고 한다. 자음 동화에는 특정 자음이 다른 자음의 조음 방법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방법 동화(비음화, 설측음화), 조음 위치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위치 동화가 있다. 선행 음절의 말음이 후행 음절의 두음의 조음 위

32) 강희숙(1994)의 연구에서도 유기음화의 실현이 교육에 의한 영향임을 보고한 바 있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때, 중상류층보다 중하류층의 부모들이 유기음화되지 않은 변이형으로 실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방언형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 결과 중하류층 화자들의 비표준 변이형 실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33) 흙 한 덩이[흐칸덩이~흐간덩이], 옷 한 벌[오탄벌~오단벌], 밥 한 그릇[바관그른~바반그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발화가 빨리되면 단어 경계가 음절 경계로 대치될 수 있다.

34) 연속하는 음운을 같은 조음 방식이나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발음하면 조음 기관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같은 동화는 발음을 좀 더 쉽게 하려는 노력 경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치에 동화되어 두 자음이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진 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위치 동화이다.

방법 동화와 위치 동화는 방법과 위치의 차이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인가 수의적인 것인가에 따라서도 성격이 다르다. 예컨대, 방법 동화로서 /국물/은 [궁물]로 필수적으로 실현되지만, /꽃감/은 [곧감]~[곡감]을 도출함으로써 수의적인 도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단일 기저로부터 몇 개의 표면 음성이 도출될 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외의 것을 ‘수의 변이’ 또는 ‘임의 변이’(허용, 1985: 141)라고 한다.

그러나 강창석(1989)에서는 적용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다는 식의 수의적 규칙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의적인 규칙은 조음상의 편의, 발화 스타일이나 빠르기 등 화자의 선택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서 위치동화는 수의적 동화이다. 위치 동화는 표준 발음³⁵⁾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³⁶⁾

위치 동화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치경음/구개치경음 + 양순음 → [양순음 - 양순음]

- ㄱ. /엿보다/ → [연뽀다] ~ [엽뽀다]
- ㄴ. /준비/ → [준비] ~ [쭙비]
- ㄷ. /몇 명/ → [면명] ~ [멤명]
- ㄹ. /낮부터/ → [남뿌터] ~ [납뿌터]

(13) 치경음/구개치경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 ㄱ. /연구/ → [연구] ~ [영구]
- ㄴ. /웃거리/ → [온꺼리] ~ [옥꺼리]

35) 제5장 제2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온감](×[옥감]), 있고[인꼬](×[익꼬]), 꽃길[꼇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절머기]), 문법[문뽁](×[몹뽁]), 꽃밭[꼇뽁](×[꼭뽁])

36) 통시적으로 관찰되는 위치동화에는 ‘잠개>쟁기, 삼기다>생기다, 홍보로>함부로, 습겁다>싱겁다’ 등이 있다.

ㄷ. /늦가을/ → [늦까을] ~ [늑까을]

ㄹ. /몇 개/ → [몇깨] ~ [떡깨]

(14) 양순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ㄱ. /참기름/ → [참기름] ~ [창기름]

ㄴ. /참관/ → [참 관] ~ [창 관]

ㄷ. /합격/ → [합격] ~ [학격]

ㄹ. /앞가슴/ → [압까슴] ~ [악까슴]

(12)~(14)에서 보듯이 치경음과 구개치경음은 양순음 앞에서는 양순음으로만, 연구개음 앞에서는 연구개음으로만, 양순음은 연구개음 앞에서 연구개음으로만 실현된다. 따라서 양순음이 치경음이나 구개 치경음으로(남다 → *[난다], 연구개음이 양순음(강도 → *[감도])이나 치경음/구개치경음(각도 → *[갓또])으로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위치 동화의 실현 현상을 바탕으로 다음 (15)와 같은 조음 위치 강도가 결정된다.

(15)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강도(강옥미, 2003: 468)

연구개음 > 양순음 > 구개 치경음 > 치경음

수의적 동화로서 위치동화와 관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확인된 음운 변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6) 치경음+양순음 → [양순음 - 양순음]

	A		B
ㄱ. 거짓말	→	[거진말]	~ [거짐말]
ㄴ. 냇물	→	[넛물]	~ [냄물]
ㄷ. 연필	→	[연필]	~ [염필]
ㄹ. 신문	→	[신문]	~ [심문]

(17) 치경음+ 연구개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A		B
ㄱ. 안경	→	[안경]	~	[양경]
ㄴ. 인기	→	[인끼]	~	[잉끼]

(18) 양순음+ 연구개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A		B
ㄱ. 감기	→	[감기]	~	[강기]

(16)~(18)에서 보듯이 A계열과 B계열 두 가지로 실현되는데, B계열이 위치 동화 된 경우이다. 먼저 (16)은 치경음 /ㄴ/가 양순음 [ㄱ], [ㅋ]로 실현되므로 양순음 화라 할 수 있는데, ‘거짓말[거짐말], 냇물[넙물]’ 에서 보듯이 /ㄴ/는 중화에 의해 /ㄷ/로 바뀐 뒤에 비음화를 거쳐 위치 동화가 된다.³⁷⁾ (17)~(18)은 /ㄴ/, /ㄷ/, /ㄴ/, /ㄷ/, /ㄴ/와 같은 치경음과 /ㄱ/, /ㅋ/, /ㅋ/와 같은 양순음이 연구개음 [ㅇ], [ㅇ]으로 실현되므로 연구개음화라 할 수 있다.

위치동화를 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 위치 동화 규칙(강옥미, 2003: 225)

$$[+cons] \longrightarrow \begin{bmatrix} \alpha ant \\ \beta cor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cons \\ \alpha ant \\ \beta cor \end{bmatrix}$$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발음에서 실현되는 위치 동화가 사회적 요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37) /거짓말/ → [거짐말] → [거짐말], /냇물/ → [넙물] → [넙물]

3.3.2. 말투별 분석

화자의 말투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말투별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말투 변이 학년 형	단어 읽기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일상적인 말투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거짓말	ㄱ	39.5	47.4	43.5	57.9	73.7	65.8	81.6	86.8	84.2	92.1
	ㄴ	60.5	52.6	56.5	42.1	26.3	34.2	18.4	13.2	15.8	7.9	7.9	7.9
넷 물	ㄱ	50.0	36.8	43.4	55.3	73.7	64.5	81.6	65.8	73.7	97.4	76.3	86.9
	ㄴ	50.0	63.2	56.6	44.7	26.3	35.5	18.4	34.2	26.3	2.6	23.7	13.1
연 필	ㄱ	34.2	36.8	35.5	47.4	68.4	57.9	76.3	78.9	77.6	94.7	89.5	92.1
	ㄴ	65.8	63.2	64.5	52.6	31.6	42.1	23.7	21.1	22.4	5.3	10.5	7.9
신 문	ㄱ	57.9	71.1	64.5	76.3	86.8	81.6	92.1	84.2	88.2	100.0	100.0	100.0
	ㄴ	42.1	28.9	35.5	23.7	13.2	18.4	7.9	15.8	11.8	0.0	0.0	0.0
안 경	ㅇ	57.9	28.9	43.4	86.8	92.1	89.5	86.8	76.3	81.6	94.7	100.0	97.4
	ㄴ	42.1	71.1	56.6	13.2	7.9	10.5	13.2	23.7	18.4	5.3	0.0	2.6
인 기	ㅇ	47.4	42.1	44.8	86.8	84.2	85.5	84.2	73.7	79.0	94.7	92.1	93.4
	ㄴ	52.6	57.9	55.2	13.2	15.8	14.5	15.8	26.3	21.0	5.3	7.9	6.6
감 기	ㅇ	2.6	0.0	1.3	7.9	2.6	5.3	10.5	5.3	7.9	36.8	10.5	23.7
	ㄱ	97.4	100.0	98.7	92.1	97.4	94.7	89.5	94.7	92.1	63.2	89.5	76.3
계	Y	41.4	37.6	39.5	59.8	68.8	64.3	73.3	67.3	70.3	87.2	80.1	83.7
	N	58.6	62.4	60.5	40.2	31.2	35.7	26.7	32.7	29.7	12.8	19.9	16.3

Y=위치 동화 적용, N=위치 동화 미적용

위치 동화는 발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을수록 실현율이 높다. 위의 <표 3-9>에서도 일상적인 말투에서 가장 높은 실현율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감기’를 제외하고, ‘넷물’에서는 86.9%, 나머지 어휘에서는 92.1~100%의 실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감기’에서 나타나는 실현율이다. 단어 읽기 말투에서는 1.3%, 문장 읽기 말투에서는 5.3%, 면담 말투에서는 7.9%, 일상적인 말투에서는 23.7%의 실현율을 보임으로써 다른 어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양순음의 연구개음화인 /ㄱ/→ [ㅇ]의

동화가 치경음의 양순음화나 연구개음화인 /ㄴ/, /ㄷ/→ [ㄱ], [ㅇ]의 동화보다 적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³⁸⁾

이러한 결과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첫째는 선행자음의 조점과 후행자음의 조음점 간의 거리인데, ‘감기’의 경우 선행 자음은 양순음이며 후행 자음은 연구개음으로서 치경음/구개치경음이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으로 조음점을 옮길 때의 거리보다 더 멀기 때문이다. 둘째는 /ㄴ/, /ㄷ/가 동화되었을 때보다 /ㄱ/→ [ㅇ]로 실현되면 의미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희제(1996: 7)는 양순음의 연구개음화가 치경음의 연구음화보다 더 높은 빈도로 일어나며, 그것은 치경음보다 순음의 위치 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³⁹⁾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위치 동화의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의 강도라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3.3.3. 학년별 분석

화자의 학년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10>과 같다.

38) 보충 조사에서도 ‘금강산, 감귤, 감격’은 [금강산], [강귤], [강격]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39) 성희제(1999: 7)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치경음의 연구개음화 : 산골[상꿀], 벗고[벽꼬], 눈곱[농쑹], 밭고랑[박꼬랑], 찾고[착꼬]

양순음의 연구개음화 : 업고[업꼬~억꼬], 숨고[숨꼬~송꼬], 잠결[잠결~장결], 숲길[숲길~숙길]

<표 3-10> 학년별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형	학 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거짓말	ㄱ	92.1	92.1	92.1
	ㄴ	7.9	7.9	7.9
넷 물	ㄱ	97.4	76.3	86.9
	ㄴ	2.6	23.7	13.1
연 필	ㄱ	94.7	89.5	92.1
	ㄴ	5.3	10.5	7.9
신 문	ㄱ	100.0	100.0	100.0
	ㄴ	0.0	0.0	0.0
안 경	ㅇ	94.7	100.0	97.4
	ㄴ	5.3	0.0	2.6
인 기	ㅇ	94.7	92.1	93.4
	ㄴ	5.3	7.9	6.6
감 기	ㅇ	36.8	10.5	23.7
	ㄱ	63.2	89.5	76.3
계	Y	87.2	80.1	83.7
	N	12.8	19.9	16.3

<표 3-10>에서 보듯이 학년별 비교에서도 ‘감기’를 제외하고 학년에 관계없이 6학년과 2학년이 모두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넷물’의 경우에만 21.1%의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어휘에서 2.6~5.3%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기’의 경우에는 2학년과 6학년 모두 매우 낮은 실현율을 보이면서도 2학년에 비해 6학년의 실현율이 26.3% 낮았는데, 이는 /ㄱ/→ [ㅇ]로 실현되면 의미가 변동될 수도 있어 의미 변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6학년은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3.4. 성별 분석

화자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성별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성 변 이 형	학년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남	여	남	여	남	여		
거짓말	ㄱ	100.0	85.7	94.1	90.5	97.1	88.1		
	ㄴ	0.0	14.3	5.9	9.5	2.9	11.9		
넷 물	ㄱ	94.1	100.0	76.5	76.2	85.3	88.1		
	ㄴ	5.9	0.0	23.5	23.8	14.7	11.9		
연 필	ㄱ	100.0	90.5	100.0	81.0	100.0	85.8		
	ㄴ	0.0	9.5	0.0	19.0	0.0	14.2		
신 문	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ㄴ	0.0	0.0	0.0	0.0	0.0	0.0		
안 경	ㅇ	94.1	95.2	100.0	100.0	97.1	97.6		
	ㄴ	5.9	4.8	0.0	0.0	2.9	2.4		
인 기	ㅇ	94.1	95.2	94.1	90.5	94.1	92.9		
	ㄴ	5.9	4.8	5.9	9.5	5.9	7.1		
감 기	ㅇ	52.9	23.8	17.6	4.8	35.3	14.3		
	ㄱ	47.1	76.2	82.4	95.2	64.7	85.7		
계	Y	90.7	84.3	83.2	77.6	87.0	81.0		
	N	9.3	15.7	16.8	22.4	13.0	19.0		

<표 3-11>에서 보듯이 ‘거짓말’에서는 남학생 화자가 여학생 화자보다 9%, ‘연 필’에서는 14.2%, ‘감기’에서는 21% 더 높게 실현되었으며 나머지 어휘에서는 0.5~2.8%의 근소한 차이로 여학생 화자의 실현율이 높다. 이는 위치 동화가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신중하지 않은 말투에서 더 잘 나타남을 감안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발화 시 주의를 덜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중하지 못한 면을 더 많이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의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이 훨씬 더 높은 실현율을 보인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40) 발음을 빨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속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두 집단 간에 발화 속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3.5. 사회 계층별 분석

화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의 <표 3-12>와 같다.

<표 3-12> 사회 계층별 위치 동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학년 사회 변이 계층 형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거짓말	ㄱ	84.6	92.9	100.0	84.2	100.0	100.0	84.4	96.0	100.0
	ㄴ	15.4	7.1	0.0	15.8	0.0	0.0	15.6	4.0	0.0
넷 물	ㄱ	100.0	92.9	100.0	73.7	63.6	100.0	84.4	80.0	100.0
	ㄴ	0.0	7.1	0.0	26.3	36.4	0.0	15.6	20.0	0.0
연필	ㄱ	84.6	100.0	100.0	78.9	100.0	100.0	81.3	100.0	100.0
	ㄴ	15.4	0.0	0.0	21.1	0.0	0.0	18.7	0.0	0.0
신문	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ㄴ	0.0	0.0	0.0	0.0	0.0	0.0	0.0	0.0	0.0
안경	ㅇ	92.3	92.9	100.0	100.0	100.0	100.0	100.0	96.0	100.0
	ㄴ	7.7	7.7	0.0	0.0	0.0	0.0	0.0	4.0	0.0
인기	ㅇ	92.3	92.9	100.0	94.7	100.0	75.0	92.9	96.0	89.5
	ㄴ	7.7	7.1	0.0	5.3	0.0	25.0	7.1	4.0	10.5
감기	ㅇ	15.4	50.0	45.5	10.5	9.1	12.5	12.5	32.0	31.6
	ㄱ	84.6	50.0	54.5	89.5	90.9	87.5	87.5	68.0	68.4
계	Y	81.3	88.8	92.2	77.4	81.8	83.9	79.4	85.7	88.7
	N	18.7	11.2	7.8	22.6	18.2	16.1	20.6	14.3	11.3

<표 3-12>에서 보듯이, 위치동화는 중중류층과 중하류층 간에는 실현율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지만, 중상류층과 중하류층 간에는 몇 가지 어휘, 즉 ‘거짓말, 넷 물, 연필’에서만 15.6~18.7%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감기’의 경우 2학년에서는 중상류층과 중중류층·중하류층 간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계층과 위치동화의 실현율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3.4. /ㄷ/ 구개음화

3.4.1. /ㄷ/ 구개음화 현상

/ㄷ/ 구개음화는 어간의 끝 자음 /ㄷ/, /ㅌ/가 /i(j)/의 영향으로 구개음 [ㅈ], [ㅊ]로 실현되는 음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ㄷ/나 /ㅌ/를 /i(j)/와 같은 위치의 구개음 [ㅈ], [ㅊ]로 발음을 하면 조음을 할 때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든다는 조음의 편의 때문에 일어난다.

/ㄷ/ 구개음화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 ㄱ. /술+ 이/ → [소치]
- ㄴ. /밭+ 이/ → [바치]
- ㄷ. /팔+ 이/ → [파치]

- (21) ㄱ. /갈+ 이/ → [가치]
- ㄴ. /귤+ 이/ → [구치]
- ㄷ. /미#달+ 이/ → [미다지]

- (22) ㄱ. /간+ 히+ 다/ → [가치다]
- ㄴ. /달+ 히+ 다/ → [다치다]
- ㄷ. /물+ 히+ 다/ → [무치다]

- (23) ㄱ. /마디/ → [마디], *[마지]
- ㄴ. /견디+ 다/ → [견디다], *[견지다]
- ㄷ. /밭#이랑/ → [반니랑], *[바치랑]
- ㄹ. /홉#이불/ → [혼니불], *[호치불]

(20)은 체언의 끝 자음 /ㅌ/가 주격 조사 ‘이’에 의해 구개음 [츠]로 실현되었으며 (21)은 부사화 또는 명사화 접미사 ‘이’에 의해 /ㄷ/나 /ㅌ/가 구개음 [즈]나 [츠]로 실현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ㄷ/ 구개음화는 (20)처럼 곡용을 하거나, (21)처럼 파생을 할 때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며, (23ㄱ~ㄴ)처럼 단어와 동일 형태소 내부에서나, (23ㄷ~ㄹ)처럼 합성어 경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최명옥(1982)은 형태소 경계에서도 체언에 주격 조사 ‘이’나 서술격 조사 ‘이’가 연결될 때만 일어나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피동과 사동의 파생은 2차 어간을 형성하는 통시적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면 피동, 사동 접미사 ‘이, 히’에 의한 /ㄷ/ 구개음화는 공시적인 음운 기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승규, 2004: 138 재인용).

역사적으로 볼 때 /ㄷ/ 구개음화는 16세기 경 남부 방언에서 먼저 일어나 서북 방언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된 중요한 음운 변화의 하나이다(김주필 1999, 김주원 1997). 이때에는 모음 /i/나 반모음 /j/ 앞의 모든 /ㄷ/, /ㅌ/가 각각 /즈/, /츠/로 바뀌어 지금처럼 형태소 경계는 물론이고 ‘동다>좋다, 부터>부처’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도 폭넓게 나타났으나, 변화가 완료되면서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를 두고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만나는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ㄷ/ 구개음화를 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ㄷ/ 구개음화 규칙(강옥미, 2003: 184)

$$\begin{bmatrix} \text{-son} \\ \text{-cont} \\ \text{+co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ant} \\ \text{+high} \\ \text{+del. rel.}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text{-con}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이 절에서는 표준 발음법⁴¹⁾에 명시된 /ㄷ/ 구개음화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41) 제5장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즈, 츠]으로 바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확인된 음운 변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A | B | C | D | E |
|--|---|---|---|---|---|
- (25)ㄱ. /머리#술+ 이/ → [머리수치] ~ [머리수시] ~ [머리수디] ~ [머리수지] ~ [머리수리]
- ㄴ. /햇#별+ 이/ → [해뻥치] ~ [해뻥시] ~ [해뻥디]
- ㄷ. /끝+ 이/ → [끄치] ~ [끄시] ~ [끄디]
- ㄹ. /살살+ 이/ → [살싸치] ~ [사사시] ~ [사사디] ~ [사사티] ~ [사사리]
- ㅁ. /해#돋+ 이/ → [해도지] ~ [해도시]
- ㅂ. /말+ 이/ → [마지] ~ [마시] ~ [마디] ~ [마치]

(25)에서 보듯이 구개음화의 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실현된 A계열과 비구개음으로 실현된 B-E계열로 매우 다양하게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구개음화, 마찰음화, 연음 법칙, 말음 중화 등의 다양한 규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매우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의 예들 가운데 (25ㄱ~ㄷ)은 체언 어간말 자음 /ㄷ/가 주격조사 ‘이’와 결합한 형태이고, (25ㄹ)은 어근의 /ㄷ/가 부사화 접미사 ‘이’와 결합한 형태이며, (25ㅁ~ㅂ)은 어근의 /ㄷ/가 명사화 접미사 ‘이’와 결합한 형태이다. 이들은 모두 [ʒ], [ʈ]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화자들의 실제 발음을 보면 여러 변이형들 중에서 마찰음인 [ʃ]로 실현되는 경향⁴²⁾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라방언에서도 /ㄷ/, /ʈ/, /ʒ/는 주격과 목적격 조사와의 결합에서 마찰음 [ʃ]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길재, 2004). 이러한 현상은 음성학적인 면에서 볼 때 발음상의 편의를 위한 자연적인 경향에 말미암은 일종의 약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숙(1994: 111)도 파찰음이 마찰음이 되려고 하는 경향은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생득적 현상으로서 인간의 조음 기관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적 음운 과정의 하

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굳이든다[고지든따], 굳이[구지], 미답이[미다지], 땀받이[답바지], 밭이[바치], 벼훅이[벼훅치]

42) 어간말 자음 /ㄷ, ʒ, ʈ, ㄷ/에 적용되는 마찰음화는 구개음화라는 중간 단계를 거친 ‘ʒ, ʈ>ʃ’의 변화를 의미한다(강희숙, 1994: 110).

나인데, 이는 음운론적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언어 변화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인 노력 경제의 원칙에 도달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창석(1989)은 이러한 현상을 ‘ㄷ>ㅅ’의 방향으로 중화한 결과로서 국어 화자들이 음절 말음 /ㄷ/를 /ㅅ/로 인식하는 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화 이후 ‘벗, 못, 분’ 등 어간 말에 /ㄷ/를 가지고 있었던 체언들이 ‘벗, 못, 분’으로 재구조화된 사실과, 외래어의 차용에서 ‘good, bat’ 등이 ‘굳, 뺏’으로 차용되지 않고 ‘굳, 뺏’ 등으로 차용되어 ‘ㅅ’ 받침을 사용하는 모습 및 한국어 맞춤법에서 받침 표기에 ‘ㄷ’보다 ‘ㅅ’를 선호하는 경향을 들었다.

한편, C계열의 [머리수디], [해도디], [사사디]의 경우는 음절 말에서 말음 중화가 먼저 적용되고 나서 연음으로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말이’를 [마치]로 실현한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는 /ㅌ/가 [ㅈ]로 구개음화되는 현상을 유추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머리수지]는 음절 말에서 중화된 발음인 [ㄷ]에 구개음화를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발음에서 실현되는 /ㄷ/ 구개음화가 사회적 요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3.4.2. 말투별 분석

화자의 말투에 따라 나타나는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13>과 같다.

<표 3-13> 말투별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 학년 형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일상적인 말투		
		단어 읽기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일상적인 말투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머리술이	ㄷ	42.1	81.6	61.9	42.1	65.8	54.0	31.6	78.9	55.3	26.3	71.1	48.7
	ㅅ	42.1	15.8	28.9	42.1	34.2	38.2	50.0	21.1	35.5	60.5	28.9	44.7
	ㄷ	13.2	2.6	7.9	7.9	0.0	3.9	15.8	0.0	7.9	7.9	0.0	3.9
	ㅅ	2.6	0.0	1.3	5.3	0.0	2.6	0.0	0.0	0.0	2.6	0.0	1.3
	ㄷ	0.0	0.0	0.0	2.6	0.0	1.3	2.6	0.0	1.3	2.6	0.0	1.3
햇별이	ㄷ	18.4	68.4	43.4	13.2	60.5	36.9	21.1	63.2	42.2	15.8	57.9	36.9
	ㅅ	76.3	29.0	52.7	86.8	39.5	63.1	76.3	31.6	53.9	81.6	42.1	61.9
	ㄷ	5.3	2.6	3.9	0.0	0.0	0.0	2.6	5.2	3.9	2.6	0.0	1.3
끝이	ㄷ	76.3	100.0	88.2	89.5	100.0	94.8	63.2	100.0	81.6	68.4	94.7	81.6
	ㅅ	10.5	0.0	5.2	7.9	0.0	3.9	26.3	0.0	13.1	31.6	5.3	18.4
	ㄷ	13.2	0.0	6.6	2.6	0.0	1.3	10.5	0.0	5.3	0.0	0.0	0.0
살살이	ㄷ	23.7	78.9	51.3	36.8	73.7	55.3	44.7	81.6	63.2	39.5	81.6	60.5
	ㅅ	52.6	10.5	31.5	50.0	26.3	38.2	42.2	18.4	30.3	47.4	18.4	32.9
	ㄷ	13.2	5.3	9.3	7.9	0.0	3.9	10.5	0.0	5.3	7.9	0.0	4.0
	ㅅ	7.9	5.3	6.6	0.0	0.0	0.0	0.0	0.0	0.0	2.6	0.0	1.3
	ㄷ	2.6	0.0	1.3	5.3	0.0	2.6	2.6	0.0	1.3	2.6	0.0	1.3
해돋이	ㅅ	47.4	92.1	69.8	52.6	92.1	72.4	55.3	94.7	75.0	50.0	94.7	72.4
	ㅅ	52.6	7.9	30.2	47.4	7.9	27.6	44.7	5.2	25.0	50.0	5.3	27.6
만이	ㅅ	36.8	78.9	57.9	55.3	78.9	67.1	26.3	78.9	52.6	31.6	81.6	56.6
	ㄷ	47.4	15.8	31.6	34.2	5.3	19.7	21.1	13.2	17.2	60.5	15.8	38.2
	ㅅ	15.8	0.0	7.9	10.5	13.2	11.9	52.6	2.6	27.6	5.3	0.0	2.6
	ㄷ	0.0	5.3	2.6	0.0	2.6	1.3	0.0	5.3	2.6	2.6	2.6	2.6
	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Y	40.8	83.3	62.1	48.2	78.5	63.4	40.4	82.9	61.6	38.6	80.3	59.5
	N	59.2	16.7	37.9	51.8	21.5	36.6	59.6	17.1	38.4	61.4	19.7	40.5

Y=구개음화 적용, N=구개음화 미적용

<표 3-13>에서 보듯이 2학년의 경우 ‘머리술이, 햇별이’를 제외한 ‘끝이, 살살이, 해돋이, 만이’에서는 단어 읽기 말투에서보다 오히려 문장 읽기 말투에서 더 높은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보았던 음운 현상들에서 ‘단어 읽기 말투’의 표준 변이형 실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살살이, 해돋이’의 경우도 매우 특이하다. 평균 실현율을 볼 때 ‘단어 읽기 말투’에서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한편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머리술이(48.7%), 햇별이(36.9%)’에서 나타

나는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과 ‘끝이(81.6%)’에서 나타나는 표준 변이형 실현율의 차이이다. 즉, ‘머리술이, 햇별이’는 ‘끝이’와 음운론적인 환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끝이’의 실현율이 훨씬 높다. 이는 ‘끝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표준음으로 사용함으로써 형태소의 경계가 약화되어 단일 형태소로 인식할 만큼 굳어져서 표준형인 구개음으로 실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머리술이, 햇별이’ 보다 ‘해돋이, 살살이, 맏이’의 구개음화 실현율이 모든 말투에서 대체로 더 높은 것은 ‘머리술이, 햇별이’의 어간 말 /ㄷ/는 대격과 처격 등 다른 조사와의 결합에서는 다른 음운 규칙이 적용되지만, ‘해돋이, 맏이’는 /ㄷ/가 ‘이’ 이외의 다른 접미사와 결합하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살살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구개음화 현상에서는 다른 음운 현상에서와 달리 격식성의 정도와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어휘에 따라 들쭉날쭉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구개음화의 규칙뿐만 아니라 마찰음화, 말음 중화, 연음 규칙 등이 적용되어 화자들이 매우 혼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3.4.3. 학년별 분석

화자의 학년에 따라 나타나는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14>와 같다.

<표 3-14> 학년별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

표 제 어	변이 양상	학 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머리술이	ㅈ	26.3	71.1	48.7
	ㅊ	60.5	28.9	44.7
	ㄷ	7.9	0.0	3.9
	ㅈ	2.6	0.0	1.3
	ㄹ	2.6	0.0	1.3
햇 별 이	ㅈ	15.8	57.9	36.9
	ㅊ	81.6	42.1	61.9
	ㄷ	2.6	0.0	1.3
끝 이	ㅈ	68.4	94.7	81.6
	ㅊ	31.6	5.3	18.4
살 살 이	ㅈ	39.5	81.6	60.5
	ㅊ	47.4	18.4	32.9
	ㄷ	7.9	0.0	4.0
	ㅈ	2.6	0.0	1.3
	ㄹ	2.6	0.0	1.3
해 돈 이	ㅈ	50.0	94.7	72.4
	ㅊ	50.0	5.3	27.6
만 이	ㅈ	31.6	81.6	56.6
	ㄷ	60.5	15.8	38.2
	ㅊ	5.3	0.0	2.6
	ㅈ	2.6	2.6	2.6
계	Y	38.6	80.3	59.5
	N	61.4	19.7	40.5

(위의 표에서 음영은 마찰음화의 실현율을 나타낸다)

<표 3-14>에서 학년별 실현율을 보면 모든 항목에서 2학년이 6학년보다 낮은 구개음화 실현율을 보이는 동시에 2학년의 마찰음화 실현율이 높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력(學力)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6학년은 교육 과정⁴³⁾에서 구개음화에 대한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표준 변이형으로 구개음으로 실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여겨지는바, 이것은 교육을 통한 학습에 의해 표준어 교육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2학년은 구개음화 실현율이 낮으면서 동시에 마찰음 /ㅊ/의 실현율이 높는데 이는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

43) 5-2 말·듣·쓰기 받침 <ㄷ>, <ㅌ>뒤에 <ㅣ>가 올 때의 소리 변화에 주의하며 정확하게 발음하기.

약된다. 다시 덧붙여 말하면, 어간 말 자음으로 /ㄷ/를 갖는 어휘, 즉 ‘머리술이, 헛별이, 끝이, 살살이’가 /ㄷ/를 갖는 어휘인 ‘해돋이, 맑이’보다 마찰음화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ㄷ/는 평음 [ɾ]로 실현되는 데 반해 /ㄷ/는 [ʈ]로 실현되므로 [ʈ]를 [ɾ]로 약화시켜 발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약화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음 시 노력을 덜 들이려는 노력 경제의 원칙이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형태·음운론적인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마디]형의 실현율이 38.2%나 되는 데 비해, [해돋이]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사용 빈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해돋이’는 매우 친숙한 단어로서 일상생활에서 표준형으로 습득되었지만 ‘맑이’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해돋이’의 말투별 실현율을 볼 때 단어 읽기 말투에서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표 3-15> '해돋이'의 말투별 실현율(%)

말투 학년	단어 읽기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일상적인 말투
2학년	47.4%	52.6%	55.3%	50.0%
6학년	92.1%	92.1%	94.7%	94.7%

3.4.4. 성별 분석

화자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변이의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16>과 같다.

<표 3-16> 성별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형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머리술이	ㅈ	29.4	23.8	82.4	61.9	55.9	42.9
	ㅊ	47.1	71.4	17.6	38.1	32.3	54.8
	ㄷ	11.7	4.8	0.0	0.0	6.0	2.3
	ㅈ	5.9	0.0	0.0	0.0	2.9	0.0
	ㄷ	5.9	0.0	0.0	0.0	2.9	0.0
햇별이	ㅈ	5.9	23.8	64.7	52.4	35.3	38.1
	ㅊ	88.2	76.2	35.3	47.6	61.8	61.9
	ㄷ	5.9	0.0	0.0	0.0	2.9	0.0
끝이	ㅈ	76.5	61.9	100.0	90.5	88.2	76.2
	ㅊ	23.5	38.1	0.0	9.5	11.8	23.8
살살이	ㅈ	41.1	38.1	82.4	80.9	61.8	59.5
	ㅊ	47.1	47.6	17.6	19.0	32.4	33.3
	ㄷ	0.0	14.3	0.0	0.0	0.0	7.2
	ㅈ	5.9	0.0	0.0	0.0	2.9	0.0
	ㄷ	5.9	0.0	0.0	0.0	2.9	0.0
해돋이	ㅈ	52.9	47.6	94.1	95.2	73.5	71.4
	ㅊ	47.1	52.4	5.9	4.8	26.5	28.6
말이	ㅈ	11.8	47.6	76.5	85.7	44.1	66.7
	ㄷ	82.3	42.9	17.6	14.3	50.0	28.6
	ㅊ	0.0	9.5	0.0	0.0	0.0	4.7
	ㅈ	5.9	0.0	5.9	0.0	5.9	0.0
계	Y	36.3	40.5	83.3	77.8	59.8	59.1
	N	63.7	59.5	16.7	22.2	40.2	40.9

위의 <표 3-16>에서 보듯이 ‘말이, 햇별이’를 제외한 모든 어휘에서 여학생 화자의 비표준 변이형의 평균 실현율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던 음운 현상들에서 여학생 화자들의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표준 변이형의 실현은 곧 마찰음화로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여학생 화자들이 과찰음을 마찰음으로 약화시켜 실현함으로써 부드럽게 보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마찰음화’라는 개신에 여학생 화자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3.4.5. 사회 계층별 분석

화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의 <표 3-17>과 같다.

<표 3-17> 사회 계층별 /ㄷ/ 구개음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 형태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머리술이	ㅈ	30.8	28.6	18.2	78.9	63.6	62.5	59.4	44.0	36.8
	ㅊ	61.5	71.4	45.4	15.8	36.4	37.5	34.4	56.0	42.1
	ㄷ	7.7	0.0	18.2	0.0	0.0	0.0	3.1	0.0	10.5
	ㅌ	0.0	0.0	9.1	5.3	0.0	0.0	3.1	0.0	5.3
	ㄹ	0.0	0.0	9.1	0.0	0.0	0.0	0.0	0.0	5.3
햇 별 이	ㅈ	15.4	14.3	18.2	63.2	54.6	50.0	43.8	32.0	31.6
	ㅊ	84.6	78.6	81.8	36.8	45.4	50.0	56.2	64.0	68.4
	ㄷ	0.0	7.1	0.0	0.0	0.0	0.0	0.0	4.0	0.0
끝 이	ㅈ	84.6	64.3	54.6	94.7	100.0	87.5	90.6	80.0	68.4
	ㅊ	15.4	35.7	45.4	5.3	0.0	12.5	9.4	20.0	31.6
살 살 이	ㅈ	46.2	42.9	27.3	89.5	81.8	62.5	71.9	60.0	42.1
	ㅊ	46.2	42.9	54.6	10.5	18.2	37.5	25.0	32.0	47.3
	ㄷ	7.6	7.1	9.1	0.0	0.0	0.0	3.1	4.0	5.3
	ㅌ	0.0	7.1	0.0	0.0	0.0	0.0	0.0	4.0	0.0
	ㄹ	0.0	0.0	9.1	0.0	0.0	0.0	0.0	0.0	5.3
해 돋 이	ㅈ	76.9	42.9	27.3	100.0	100.0	75.0	90.6	68.0	47.4
	ㅊ	23.1	57.1	72.7	0.0	0.0	25.0	9.4	32.0	52.6
말 이	ㅈ	30.8	35.7	27.3	89.5	81.8	62.5	65.6	56.0	42.1
	ㅊ	61.5	64.3	54.5	10.5	18.2	37.5	31.2	44.0	47.4
	ㅌ	0.0	0.0	18.2	0.0	0.0	0.0	0.0	0.0	10.5
	ㅈ	7.7	0.0	0.0	0.0	0.0	0.0	3.2	0.0	0.0
계	Y	47.4	38.1	28.8	86.0	80.3	66.7	70.3	56.7	44.7
	N	52.6	61.9	71.2	14.0	19.7	33.3	29.7	43.3	55.3

<표 3-17>에서 보듯이 사회 계층별 실현율을 학년별로 보면 대체로 중상류층에서 아래로 내려 갈수록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전체적인 평균 실현율을 보면 규칙적으로 중상류층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개음화의 실현율

이 낮아진다. 특히 중중류층과 중하류층은 비교적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중상류층과 중하류층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개음화의 실현과 사회 계층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5. 자음군 단순화

3.5.1. 자음군 단순화 현상

한국어에서 음절이 허용하는 분절음의 최대 연쇄는 CGVC이다. 두음과 말음에 1개의 자음밖에 허용하지 않으므로 기저에서 동일 형태소 내 자음군 C_1C_2 중 하나가 표면에서 실현되지 않고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 한다(강옥미 2003: 352). 즉,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말음이 자음 둘로 이루어진 자음군(C_1C_2)일 때, 음절말 위치에서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되면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다.

현대 국어에는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ㄹ, ㄷ, ㄹ, ㄷ, ㄹ, ㅁ/의 11개의 자음군이 있는데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해 실현되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C_1C_2 는 동일 형태소 내 자음군)

- (26) /ㄱ/계 → [ㄱ](C_2 탈락)
 ㄱ. /꺾/ → [꺾]
 ㄴ. /넉도/ → [넉도]

- (27) /ㅁ/계 → [ㅁ](C_2 탈락)
 ㄱ. /꺾/ → [꺾]
 ㄴ. /없고/ → [엷꼬]

(28) /리/계 → [ㄱ], [ㄴ](C₁ 또는 C₂ 탈락)

ㄱ. /닭/ → [닥]
ㄴ. /닭과/ → [닥파]
ㄷ. /닭다/ → [막따]
ㄹ. /닭고/ → [말꼬]

(29) /래/계 → [ㄹ](C₁ 탈락)

ㄱ. /삶/ → [삼]
ㄴ. /삶고/ → [곰꼬]

(30) /래/계 → [ㄹ], [ㅂ](C₁ 또는 C₂ 탈락)

ㄱ. /밧고/ → [밧꼬]
ㄴ. /밧고/ → [닐꼬]

(31) /래/계 → [ㅂ](C₁ 탈락)

ㄱ. /웁고/ → [웁꼬]
ㄴ. /웁는/ → [웁는]

(32) /라/계 → [ㄴ](C₂ 탈락)

ㄱ. /얏고/ → [안꼬]
ㄴ. /얏는/ → [언는]

(33) /라/계 → [ㄴ]

ㄱ. /얏고/ → [안꼬]
ㄴ. /얏고/ → [만꼬]

(34) /라/계 → [ㄹ](C₂ 탈락)

ㄱ. /외곶/ → [외곶]

(35) /래/계 → [ㄹ](C₂ 탈락)

ㄱ. /훈고/ → [훈꼬]
ㄴ. /훈고/ → [할꼬]

(36) /ㄹ/계 → [ㄹ](C₂ 탈락)

ㄱ. /않는/ → [알른]

ㄴ. /잃는/ → [일른]

(26)~(36)에서 보듯이 탈락하는 자음을 보면 C₁이 탈락하기도 하고 C₂가 탈락하기도 하며, 첫 자음이 유음인 자음군에서도 탈락하는 자음이 다르게 나타나 탈락의 양상이 간단하지 않다. 이와 같은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는데⁴⁴⁾ 신지영(2004: 253)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26)~(31)은 조음 위치상 비치경음인 양순음과 연구개음으로 실현되고, (32)~(36)은 조음 방법상 공명음으로 실현된다. 단 /ㄹ/, /ㄹ/는 활용할 때 활용 어미에 따라 양순음과 연구개음인 /ㄱ/, /ㄴ/로 실현되기도 하고 공명음인 /ㄹ/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치경자음과 비치경자음이 연쇄될 경우 비치경음이 남고 치경음이 탈락하며, 공명 자음과 비공명 자음이 연쇄될 경우 공명 자음이 남고 비공명 자음이 탈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체언의 어간 말 자음군 단순화는 제외하고 비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은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음군 단순화에 대하여 <표준 발음법>에서는 제4장의 제10항⁴⁵⁾과 11항⁴⁶⁾에 규정해 놓고 있다. 기

44) 음운 이론의 변천 과정에 따라 살펴본다면 규칙으로 해결하려고 한 연구들로서는 김진우(1971, 1973), 이혜숙(1980), 이진호(1997) 등이 대표적이며, 제약이나 음절화 원리 자질 기하학적인 해석을 한 연구로서 김영석(1984), 김차균(1987), 오미라(1993), 등이 있었고, 최적성 이론을 적용한 시도로서 김원보(1998), 전중호(1998) 등이 있다(문양수, 2001).

45) 겹받침 ‘ㄱ, ㄴ, ㄹ,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앓다[안따] 여덟[여덜] 났다[닐따]

외곶[외곶] 훗다[훗따] 값[갑] 없다[엷 : 따]

다만, ‘뽳-’은 자음 앞에서 [뽳]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넋]으로 발음한다.

(1) 뽳다[뽳 : 따] 뽳소[뽳 : 쏘] 뽳지[뽳 : 쨌]

 뽳는[뽳 : 는 → 밤 : 는] 뽳개[뽳 : 께] 뽳고[뽳 : 꼬]

(2) 넋-죽하다[넋쭈카다] 넋-동글다[넋똥글다]

46) 겹받침 ‘ㄹ, ㄹ, 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훗과[훗과] 맑다[막따] 늣지[늣찌]

삶[삼] 짚다[짚 : 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저의 자음군이 표면형으로 실현될 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확인된 음운 변이형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37) /ㄹ/계		A	B	C
ㄱ. /늑다/	→	[늑따]	~	[늘따]
ㄴ. /읽다/	→	[익따]	~	[일따]
ㄷ. /밖다/	→	[박따]	~	[발따]
ㄹ. /막지/	→	[막찌]	~	[말찌]

(38) /ㅍ/계				
ㄱ. /뵤지/	→	[뵤찌]	~	[발찌] ~ [뵤따]
ㄴ. /쫼다/	→	[쫼따]	~	[쫼따] ~ [쫼따]

(39) /ㅈ/계			
ㄱ. /쫼다/	→	[점따]	~ [절따]

(37)~(39)에서 보듯이 어간의 자음군이 단순화될 때, 표준 변이형으로 단순화된 A계열과 비표준 변이형으로 단순화된 B계열, 단순화되지 않은 C계열로 실현된다.

(37)~(39)는 모두 /ㄹ/계의 자음군⁴⁷⁾으로서 규정에 의하면 후행 자음에 따라 탈락되는 자음이 다르다. 즉, /ㄹ/, /ㅍ/계는 C₁인 /ㄹ/가, /ㅍ/계는 ‘뵤-’은 C₁인 /ㄹ/가 탈락되고 ‘쫼-’은 C₂인 /ㅍ/가 탈락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화자들은 C₂를 탈락시키고 C₁인 [ㄹ]계로 실현시키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탈락되는 형태를 단일화하여 기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발음에서 실현되는 자음군 단순화가 사

47) ‘ㄹ’이 선행 자음으로 오는 겹자음의 수와 그 어휘례가 월등히 많은 이유를 살펴본다면 언어 보편적인 음절 구조 제약인 ‘공명도 연결 제약(sonority sequence constraint : 한 음절 내에서 음절핵의 공명도가 가장 높고 양쪽 끝을 향하면서 공명도는 점차 낮아진다)’에 대하여 어긋나지도 않고 공명도가 높은 유음이 선행할 경우 후행 자음의 종류도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의 수가 적은 이유는 해당 어휘가 역사적인 과정에서 소멸되고 자음군 자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양수, 2001: 3).

회적 요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3.5.2. 말투별 분석

화자의 말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은 다음 <표 3-18>과 같다.

<표 3-18> 말투별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말투 학년 변이 형	단어 읽기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일상적인 말투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늑 다	ㄱ	57.9	78.9	68.4	23.7	44.7	34.2	28.9	65.8	47.4	13.2
	ㄴ	42.1	21.1	31.6	72.3	55.3	65.8	71.1	34.2	52.6	86.8	52.6	69.7
입 다	ㄱ	50.0	71.1	60.5	21.1	21.1	21.1	26.3	73.7	50.0	10.5	50.0	30.3
	ㄴ	50.5	28.9	39.5	78.9	78.9	78.9	73.7	26.3	50.0	89.5	50.0	69.7
뱀 다	ㄱ	34.2	57.9	46.1	21.1	34.2	27.6	21.1	42.1	31.6	5.3	21.1	13.2
	ㄴ	65.8	42.1	53.9	78.9	65.8	72.4	78.9	57.9	68.4	94.7	78.9	86.8
뱀 지	ㄱ	23.7	55.3	39.5	7.9	23.7	15.8	13.2	39.5	26.3	0.0	15.8	7.6
	ㄴ	76.3	44.7	60.5	92.1	76.3	84.2	86.8	60.5	73.7	100.0	84.2	92.4
뱀 지	ㅂ	36.8	23.7	30.3	23.7	7.9	15.8	10.5	13.2	11.8	2.6	5.3	3.9
	ㄴ	50.0	76.3	63.1	68.4	92.1	80.3	71.1	86.8	79.0	84.2	94.7	89.5
	ㄹ	13.2	0.0	6.6	7.9	0.0	3.9	18.4	0.0	9.2	13.2	0.0	6.6
짧 다	ㄴ	57.9	86.8	72.4	73.7	100.0	86.8	65.8	92.1	78.9	73.7	97.4	85.5
	ㅂ	18.4	13.2	15.8	21.0	0.0	10.5	18.4	7.9	13.2	18.4	2.6	10.5
	ㄹ	23.7	0.0	11.8	5.3	0.0	2.7	15.8	0.0	7.9	7.9	0.0	4.0
짧 다	ㅍ	94.7	100.0	97.4	94.7	100.0	97.4	94.7	100.0	97.4	94.7	100.0	97.4
	ㄴ	5.3	0.0	2.6	2.6	0.0	2.6	5.3	0.0	2.6	5.3	0.0	2.6
계	Y	50.7	67.7	59.2	38.0	47.4	42.7	37.2	60.9	49.1	28.6	48.1	38.3
	N	49.3	32.3	40.8	62.0	52.6	57.3	62.8	39.1	50.9	71.4	51.9	61.7

Y=표준 변이형, N=비표준 변이형

<표 3-18>에서 보듯이, ‘짧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예컨대 /ㄹ/계 자음군에서는 후행 자음이 /ㄱ/일 때는 ‘ㄱ’가 탈락하고 그 외의 경우는 /ㄹ/가 탈락하며, 같은 /ㄹ/ 자음군에서도 ‘뱀-’과 ‘짧-’에

서 탈락되는 형태가 다른 등 간단하지 않은 규정에서 비롯된 결과다. 즉, 화자들이 ‘ㄹ’을 제외한 /ㄹ/, /ㄹ/계의 자음군을 가졌을 때 모든 환경에서 대부분 선행 자음인 [ㄹ]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뱃지, 째다’를 제외한 모든 어휘에서 ‘문장 읽기 말투’보다 덜 격식적인 ‘면담 말투’에서 오히려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관찰자의 모순이 드러난 결과라기보다는, 내용에 몰입하다 보니 면담 상황에서보다 더 자연스러운 발화가 유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어휘별로 보면 ‘늡다, 읽다’는 각각 69.7%가 [늘따], [일따]로, ‘뱃다’는 86.8%가 [발따]로, ‘뱃지’는 92.4%가 [말찌]로, ‘째다’는 2.6%만이 비표준 변이형인 [절따]로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말투에서 /ㄹ/계의 비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69.7~92.4%인 데 비해 /ㄹ/계는 2.6%밖에 되지 않는 것은 /ㄹ/계는 후행하는 자음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규정으로 인해 매우 혼란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ㄹ/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뱃다’의 경우 [ㅂ]로 발음되는 예외 규정 때문에 ‘째다’에서는 모든 말투에서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은 반면, ‘뱃다’는 [발따]로 실현함으로써 표준 변이형인 [뱃따]의 실현율이 매우 낮다. 다시 말하면, /ㄹ/를 자음군으로 가지고 있는 ‘뱃-, 째-’의 경우, 같은 자음군을 가지고 있으나 ‘째-’의 경우 여덫[여덜], 늡다[닐따]의 경우처럼 후행 자음(C₂) /ㅂ/를 탈락시키고 [ㄹ]로 발음하여야 하며, ‘뱃-’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선행 자음(C₁) /ㄹ/를 탈락시켜 [뱃]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뱃-’은 가장 격식적인 단어 읽기 말투에서부터 일상적인 말투까지 70~96%가 [ㄹ]로 발음하고 있다. 이는 /ㄹ/로의 개신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주의를 덜 기울일수록 비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은 데 반해 ‘째다’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단어 읽기 말투에서는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72.4%인 데 반해 일상적인 말투에서는 85.5%의 실현율을 보이는데 이는 ‘뱃-’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자음군 단순화의 규정이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므로 /ㄹ/, /ㄹ/의 경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운이 탈락하는가에 대한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만큼(박영순: 2001) 현재 한국인 언중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하여 검증한 후에 가장 타당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⁴⁸⁾

3.5.3. 학년별 분석

화자의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은 다음 <표 3-19>와 같다.

<표 3-19> 학년별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형	학 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늪 다	ㄱ	13.2	47.4	30.3
	ㄴ	86.8	52.6	69.7
읽 다	ㄱ	10.5	50.0	30.3
	ㄴ	89.5	50.0	69.7
밝 다	ㄱ	5.3	21.1	13.2
	ㄴ	94.7	78.9	86.8
맑 지	ㄱ	0.0	15.8	7.6
	ㄴ	100.0	84.2	92.4
밟 지	ㅂ	2.6	5.3	3.9
	ㄴ	84.2	94.7	89.5
	ㄹ	13.2	0.0	6.6
짧 다	ㄴ	73.7	97.4	85.5
	ㅂ	18.4	2.6	10.5
	ㄹ	7.9	0.0	4.0
젊 다	ㄱ	94.7	100.0	97.4
	ㄴ	5.3	0.0	2.6
계	Y	28.6	48.1	38.3
	N	71.4	51.9	61.7

<표 3-19>에서 보듯이 ‘젊다, 짧다’를 제외한 ‘늪다, 읽다, 밝다, 맑지, 밟지’에서 나타나는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매우 낮다. 그러면서 2학년이 6학년에 비해 표

48) 서울말 화자를 대상으로 한 국립국어원 연구에서도 90%가 ‘밟고’를 [발꼬]로, 52%가 ‘맑지’를 [말찌]로 발음하였다(김선철, 2003). 표준 발음법이 서울말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이처럼 언어 현실과 규범에는 큰 차이가 있다.

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낮은 동시에 /ㄹ/로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ㄹ/로의 개신이 2학년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교육에 의해⁴⁹⁾ 표준 변이형인 /ㄱ/로 회귀(回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짧다’의 경우는 거의 표준 변이형으로 실현되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쓰거나 들을 수 있는 어휘로서 표준 발음으로 습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 읽-, 밝-, 맑-’처럼 후행하는 자음에 따른 변화⁵⁰⁾가 없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짧다’의 경우 2학년에서는 오히려 ‘맑-’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짹따]로 실현함으로써 표준 변이형인 [짹따]로의 실현율이 73.7%에 그친 반면, ‘밝지’에서는 ‘짧다’보다 더 높은 97.4%가 비표준 변이형인 [발찌]로 실현시킨 것을 볼 때 국어 화자들은 자음군 단순화의 이원적 규정과 예외 규정으로 인해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4. 성별 분석

화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은 다음 <표 3-20>과 같다.

49) 겹받침의 발음에 관해서는 4-1 말하기·듣기 교과서에 <닭도, 맑다, 닭이, 굶다, 삶아, 삶다가, 굶었다니>, 5-2 말하기·듣기 교과서에 <앉다, 샐도, 없고, 없고, 샐이> 등이 있는데, 6학년은 이미 두 번의 학습 과정을 거친 셈이다.

50) ‘ㄱ’앞에서는 ‘ㄱ’을 탈락시켜 [ㄹ]로 발음한다. 예) 늘고[늘꼬], 읽고[일꼬], 밝고[발꼬], 맑게[말께]

<표 3-20> 성별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성 변 이 형	학년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늑 다	ㄱ	11.8	14.3	64.7	33.3	38.2	23.8		
	ㄴ	88.2	85.7	35.3	66.7	61.8	72.2		
읽 다	ㄱ	17.6	5.9	47.1	52.3	32.3	29.1		
	ㄴ	82.4	94.1	52.9	47.7	67.7	70.9		
밖 다	ㄱ	11.8	0.0	11.8	28.6	11.8	14.3		
	ㄴ	88.2	100.0	88.2	71.4	88.2	85.7		
맑 지	ㄱ	0.0	0.0	17.6	14.3	8.8	7.2		
	ㄴ	100.0	100.0	82.4	85.7	91.2	92.8		
밖 지	ㅂ	0.0	4.7	0.0	9.5	0.0	7.2		
	ㄴ	88.2	81.0	100.0	90.5	94.1	85.7		
	ㄹ	11.8	14.3	0.0	0.0	5.9	7.1		
짧 다	ㄴ	76.5	71.4	100.0	95.2	88.2	83.3		
	ㅂ	23.5	14.3	0.0	4.8	11.8	9.6		
	ㄹ	0.0	14.3	0.0	0.0	0.0	7.1		
짧 다	ㄱ	94.1	95.2	100.0	100.0	97.0	97.6		
	ㄴ	5.9	4.8	0.0	0.0	3.0	2.4		
계	Y	30.3	27.4	48.7	47.6	39.5	37.5		
	N	69.7	72.6	51.3	52.4	60.5	62.5		

<표 3-20>에서도 보듯이 ‘짧다, 짧다’를 제외하고 남녀 화자 모두 0~38.2%의 낮은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을 보이는데 남학생 화자보다 여학생 화자가 어휘에 따라 비슷하거나, 매우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조금 더 낮은 실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의 여러 음운 현상들에서 나타났던 결과에서 여학생 화자들의 표준 변이형 실현율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겹받침의 발음에 있어서 규정이 매우 혼란스러움을 방증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학년 화자들만 ‘밖-’과 ‘짧-’을 발음할 때 두 자음을 다 발음한다는 것이다. 이는 표기에 이끌린 철자 발음으로서 이혜숙(1980)은 비정상적인 ‘신중한 발음’이라고 지적한다(박영순, 1985).

3.5.5. 사회 계층별 분석

화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은 다음 <표 3-21>과 같다.

<표 3-21> 사회 계층별 자음군 단순화의 변이 양상(%)

표제어	학년 사회 변이 계층 형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늑 다	ㄱ	15.4	7.1	18.2	47.4	45.5	50.0	34.4	24.0	31.6
	ㄴ	84.6	92.9	81.8	52.6	54.5	50.0	65.6	76.0	68.4
읽 다	ㄱ	7.7	14.3	9.1	42.1	54.6	62.5	28.1	32.0	31.6
	ㄴ	92.3	85.7	90.9	57.9	45.4	37.5	71.9	68.0	68.4
밖 다	ㄱ	7.7	7.1	0.0	26.3	18.2	12.5	18.8	12.0	5.3
	ㄴ	92.3	92.9	100.0	73.7	81.8	87.5	81.2	88.0	94.7
맑 지	ㄱ	0.0	0.0	0.0	21.1	9.1	12.5	12.5	4.0	5.3
	ㄴ	100.0	100.0	100.0	78.9	90.9	87.5	87.5	96.0	94.7
밖 지	ㅂ	7.7	0.0	0.0	5.3	9.1	0.0	6.3	4.0	0.0
	ㄴ	92.3	100.0	81.8	94.7	90.9	100.0	93.7	96.0	89.5
	ㄹ	0.0	0.0	18.2	0.0	0.0	0.0	0.0	0.0	10.5
짧 다	ㄴ	76.9	64.3	81.8	100.0	90.9	100.0	90.6	76.0	89.5
	ㄹ	23.1	21.4	9.1	0.0	9.1	0.0	9.4	16.0	5.2
짧 다	ㄹ	0.0	14.3	9.1	0.0	0.0	0.0	0.0	8.0	5.3
	ㄱ	92.3	92.9	100.0	100.0	100.0	100.0	96.9	96.0	100.0
계	ㄴ	7.7	7.1	0.0	0.0	0.0	0.0	3.1	4.0	0.0
	Y	29.7	26.5	29.9	48.9	46.8	48.2	41.1	35.4	37.6
	N	70.3	73.5	70.1	51.1	53.2	51.8	58.9	64.6	62.4

<표 3-21>에서 보듯이 ‘짧다, 짧다’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표준 형으로의 자음군 단순화 실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어휘에 따라서 표준 변이 형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계층이 중상류층일 때도 있고 중하류층일 때도 있는 등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 화자들이 겹받침을 받음 함에 있어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ㄹ/로 어간의 단일화를 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라 할 수 있다.

3.6. /ㅎ/ 탈락

3.6.1. /ㅎ/ 탈락 현상

국어의 자음 체계에서 /ㅎ/는 ‘성문 마찰음’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ㅎ/는 다른 자음과 달리 조음 위치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찰의 정도도 약해서 자음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음성학적 특징이 있다.

허용(1985)은 /ㅎ/를 ‘조음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자음’으로 처리하여 [+자음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문규(1999)는 /ㅎ/가 일반적인 자음과 같은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인접 자음에 첨가되는 자질로 변하거나 유성음 사이에서는 약화되거나 탈락하기 쉬우며, 구강 내의 특별한 자리에서 마찰음 이상의 협착을 수반하는지의 여부로 [자음성]의 값을 정할 때 /ㅎ/를 [-자음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지위로 인해 /ㅎ/는 어두 초성에서만 변별력을 가지고 있을 뿐 어중이나 어말에서는 쉽게 약화되거나 탈락하기도 한다.⁵¹⁾

/ㅎ/ 탈락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필수적인 것과 수의적인 것이 있다.

(40) 용언: 필수적 탈락

ㄱ. /좋으니/	→	[조으니]
ㄴ. /많으니/	→	[마느니]
ㄷ. /끓이고/	→	[끄리고]
ㄹ. /끓어서/	→	[끄너서]

(41) 한자어나 합성어에서 공명음 사이: 수의적 탈락

ㄱ. /전화/	→	[전화]~[저놔]
ㄴ. /방학/	→	[방학]~[방악]

51) 어두에서는 실현: 한국[한국], 어중에서는 수의적으로 탈락: 아홉[아홉~아웁], 용언 어간말에서는 필수적으로 탈락: 좋+-으니[조으니] 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유기음화, 경음화, 비음화 현상을 겪기도 한다.

ㄷ. /보호/ → [보호]~[보오]
 ㄹ. /괄힘/ → [괄힘]~[과림]

(40)에서 보듯이, /ㅎ/는 용언 어간 말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필수적으로 탈락한다. 그러나 (41)처럼 한자어나 합성어 등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 유성 자음과 모음 사이, 즉 공명음 사이에서는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그런데 전라 방언에서는 /굽하기/가 [고바기]로, /굽하다/가 [그바다]로 실현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ㅎ/ 탈락이 장애음 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2음절 이상의 형태소 뒤에 ‘하다, 하게, 했어’가 연결될 때(/뚝뚝하다/[뚝또가다], /시작하게/[시자가게], /행복했어/[행보개써] /ㅎ/ 탈락이 잘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배주채(1998: 55-56)에서는 형태소의 경계와 음소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형태 분석을 쉽게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²⁾

통시적으로는 17·18세기에도 형태소 내부에서 ‘가히>개, 골회>고리, 논호다>나누다, 달호다>다루다, 바회>바위, 방하>방아, 부형>부영이, 빈혀>비녀, 사회>사위, 올히>오리, 일흠>이름, 아히>아이’ 등 /ㅎ/ 탈락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와 같은 /ㅎ/의 수의적 탈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운론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서, 의식적이고 또렷한 발음에서는 탈락이 저지되고 발화 속도가 빠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잘 일어난다.

한편, 수의적 탈락 현상을 보이는 환경에서도 공명도가 클수록 탈락 현상이 더 활발하다(정수희, 1998: 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사용의 빈도와 관련하여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봉원(2002)에서는 /ㅎ/ 탈락을 약화로 보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친숙한 단어는 약화의 저지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어간말의 /ㅎ/ 탈락⁵³⁾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52) 예를 들면 ‘술하고’의 경우 [소타고]나 [숏타고]로 실현될 때 형태소의 경계가 한 음소 내부에 걸려 [소타고]를 ‘소를 타고’나 [숏타고]를 ‘숏을 타고’와 같이 형태 분석이 잘못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3) <표준 발음법> 제4장 제12항 4. ‘ㅎ(ㄸ,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낮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않은[아는]	닿아[다라]	싫어도[시러도]	

이 절에서는 명사의 수의적 /ㅎ/ 탈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확인된 음운 변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B
(42) 가.	/은행/	→	[은행]	~ [으냉]
	나.	→	[손해]	~ [소내]
(43) 가.	/마흔/	→	[마흔]	~ [마 은]
	나.	→	[시험]	~ [시 엄]
	다.	→	[비행기]	~ [비앵기]
	르.	→	[아홉]	~ [아 읍]

(42)는 유성 자음과 모음 사이의 /ㅎ/가 탈락한 경우이며, (43)은 모음과 모음 사이의 /ㅎ/가 탈락한 경우이다. (43)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44) /ㅎ/ 탈락 규칙(신지영, 2004: 266)

$$\left[\begin{array}{l} -\text{son} \\ +\text{asp} \\ +\text{con}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 [+son] \quad \text{_____} \quad [+son](\text{수의적})$$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발음에서 실현되는 /ㅎ/ 탈락이 사회적 요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3.6.2. 말투별 분석

화자의 말투에 따라 나타나는 /ㅎ/ 탈락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22>와 같다.

<표 3-22> 말투별 /ㅎ/ 탈락의 변이 양상(%)

표제어	말투 변이 형	단어 읽기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일상적인 말투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은행	∅	15.8	18.4	17.1	92.1	84.2	88.2	71.1	57.9	64.5	97.4	84.2	90.8
	ㅎ	84.2	81.6	82.9	7.9	15.8	11.8	28.9	42.1	35.5	2.6	15.8	9.2
손해	∅	21.1	26.3	23.7	71.1	65.8	68.4	78.9	71.1	75.0	100.0	94.7	97.4
	ㅎ	78.9	73.7	76.3	28.9	34.2	31.6	21.1	28.9	25.0	0.0	5.3	2.6
마흔	∅	15.8	7.9	11.8	84.2	84.2	84.2	55.3	52.6	53.9	92.1	89.5	90.8
	ㅎ	84.2	92.1	88.2	15.8	15.8	15.8	44.7	47.4	46.1	7.9	10.5	9.2
시험	∅	21.1	31.6	26.3	86.8	100.0	93.4	73.7	89.5	81.6	94.7	100.0	97.4
	ㅎ	78.9	68.4	73.7	13.2	0.0	6.6	26.3	10.5	18.4	5.3	0.0	2.6
비행기	∅	42.1	57.9	50.0	94.7	100.0	97.4	92.1	89.5	90.8	100.0	100.0	100.0
	ㅎ	57.9	52.1	50.0	5.3	0.0	2.6	7.9	10.5	9.2	0.0	0.0	0.0
아홉	∅	15.8	2.6	9.2	92.1	94.7	93.4	76.3	63.2	69.7	97.4	97.4	97.4
	ㅎ	54.2	97.4	90.8	7.9	5.3	6.6	23.7	36.8	30.3	2.6	2.6	2.6
계	∅	21.9	24.1	23.0	86.8	88.2	87.5	74.6	70.6	72.6	96.9	94.3	95.6
	ㅎ	78.1	75.9	77.0	13.2	11.8	12.5	25.4	29.4	27.4	3.1	5.7	4.4

위의 <표 3-2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주의를 기울인 단어 읽기 말투를 제외한 나머지 말투에서는 높은 비율로 /ㅎ/를 탈락시키고 있으며, 단어 읽기 말투, 면담 말투, 문장 읽기 말투, 일상적인 말투 순으로 /ㅎ/의 탈락률이 높다.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면담 말투보다 더 격식적인 문장 읽기 말투에서 더 높은 탈락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물론 관찰자의 모순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피조사자가 내용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비행기’와 ‘시험’은 모든 말투에서 다른 어휘에 비해 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친숙한 단어로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약화가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⁵⁴⁾

54) 약화는 자주 쓰이는 익숙한 표현이나 다른 명확한 단어들 있어서 원형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문맥에서 빈번히 일어난다(이봉원, 2002: 166에서 재인용).

이를 통하여 화자들은 뜻이 통하는 범위 안에서는 되도록 쉽게 발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3. 학년별 분석

화자의 학년에 따라 나타나는 /ㅎ/ 탈락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23>과 같다.

<표 3-23> 학년별 /ㅎ/ 탈락의 변이 양상(%)

표제어	변이형	학 년		평균 실현율
		2학년	6학년	
은행	∅	97.4	84.2	90.8
	ㅎ	2.6	15.8	9.2
손해	∅	100.0	94.7	97.4
	ㅎ	0.0	5.3	2.6
마흔	∅	92.1	89.5	90.8
	ㅎ	7.9	10.5	9.2
시험	∅	94.7	100.0	97.4
	ㅎ	5.3	0.0	2.6
비행기	∅	100.0	100.0	100.0
	ㅎ	0.0	0.0	0.0
아홉	∅	97.4	97.4	97.4
	ㅎ	2.6	2.6	2.6
계	∅	96.9	94.3	95.6
	ㅎ	3.1	5.7	4.4

<표 3-23>을 보면 대체로 2학년이 6학년에 비해 높은 /ㅎ/ 탈락률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정확한 발음, 표준어 사용의 의의, 표준 발음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여⁵⁵⁾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영향으로 보인다. 교과 과정에서는 /ㅎ/ 탈락과 관련하여 2-2 말하기·듣기 교과에서 ‘호두, 은행, 학교, 열심히, 한글, 대한민국’ 등을 다루고 있다.

55) 교육 과정에 나타난 발음 교육 관련 내용을 보면 5학년에서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 사용하여 말하기,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알기, 6학년에서는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하기가 편성되어 있다.

3.6.4. 성별 분석

화자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ㅎ/ 탈락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24>와 같다.

<표 3-24> 성별 /ㅎ/ 탈락의 변이 양상(%)

표제어	학년 변이 성별 형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은 행	∅	100.0	95.2	94.1	76.2
	ㅎ	0.0	4.8	5.9	23.8	2.4	14.3
손 해	∅	100.0	100.0	94.1	95.2	97.1	97.6
	ㅎ	0.0	0.0	5.9	4.8	2.9	2.4
마 혼	∅	100.0	85.7	88.2	90.5	94.1	88.1
	ㅎ	0.0	14.3	11.8	9.5	5.9	11.9
시 험	∅	100.0	90.5	100.0	100.0	100.0	95.3
	ㅎ	0.0	9.5	0.0	0.0	0.0	4.7
비행기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ㅎ	0.0	0.0	0.0	0.0	0.0	0.0
아 홉	∅	100.0	95.2	95.2	100.0	97.6	97.6
	ㅎ	0.0	4.8	4.8	0.0	2.4	2.4
계	∅	100.0	94.4	95.3	93.7	97.7	94.1
	ㅎ	0.0	5.6	4.7	6.3	2.3	5.9

<표 3-24>를 보면 남녀 모두 매우 높게 /ㅎ/를 탈락시키고 있다. 대체로 남학생의 탈락률이 높는데, 특히 2학년 남학생의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특히, 2학년 남학생 화자가 여학생 화자보다 언어의 사용면에서 주의를 덜 기울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2학년 여학생 화자들 중 14%가 일상적인 발음에서도 ‘짧-’을 발음할 때 [ㄷ]과 [ㅂ] 발음 사이에 입술을 붙였다가 떼는 방식으로 발음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순(1985)에서는 이를 비정상적인 ‘신중한 발음’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3.6.5. 사회 계층별 분석

화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ㅎ/ 탈락의 변이 양상을 보면 다음 <표 3-25>와 같다.

<표 3-25> 사회 계층별 /ㅎ/ 탈락의 변이 양상(%)

표제어	학년 사회 변이 계층 형	2학년			6학년			평균 실현율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
은행	∅	92.3	100.0	100.0	73.7	90.9	100.0	81.2	96.0	100.0
	ㅎ	7.7	0.0	0.0	26.3	9.1	0.0	18.8	4.0	0.0
손해	∅	100.0	100.0	100.0	89.5	100.0	100.0	93.8	100.0	100.0
	ㅎ	0.0	0.0	0.0	10.5	0.0	0.0	6.2	0.0	0.0
마흔	∅	84.6	100.0	90.9	78.9	100.0	100.0	81.3	100.0	94.5
	ㅎ	15.4	0.0	9.1	21.1	0.0	0.0	18.7	0.0	5.5
시협	∅	91.7	100.0	90.9	100.0	100.0	100.0	96.9	100.0	94.5
	ㅎ	8.3	0.0	9.1	0.0	0.0	0.0	3.1	0.0	5.5
비행기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ㅎ	0.0	0.0	0.0	0.0	0.0	0.0	0.0	0.0	0.0
아홉	∅	100.0	92.9	100.0	100.0	100.0	100.0	96.9	96.0	100.0
	ㅎ	0.0	7.1	0.0	0.0	0.0	0.0	3.1	4.0	0.0
계	∅	94.8	98.8	97.0	90.3	98.5	100.0	91.7	98.7	98.2
	ㅎ	5.2	1.2	3.0	9.7	1.5	0.0	8.3	1.3	1.8

<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학년은 계층 간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6학년은 ‘은행, 손해, 마흔’에서 중상류층과 중중류층·중하류층 간에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ㅎ/ 탈락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사회 계층이라는 변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ㅎ/는 공명음과 공명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어 약화되거나 탈락할 수도 있는 음소로, /ㅎ/ 탈락은 발음을 쉽게 하려는 노력 경제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음성 언어인 발음은 기호 체계인 문자 언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음성 언어의 변화가 기호 체

계의 혼란과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⁵⁶⁾는 점에서 교육의 현장에서는 바르게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⁷⁾

56) 기호 체계와 발음의 관계는 랑그(문법, 어법)와 빠롤(실제 발화)의 개념으로 소쉬르가 정의한 바, 빠롤은 창조성이 있으며 언어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의 맞춤법 오용 실태(이진성: 2001)에서 ‘기외(기회)’, 영양(영향), 무안한(무한한), 현옥(현혹)등의 표기가 나타났다. 이봉원(2002)에서도 음운론적 약화가 진행되면 결국 원래 단어와 약화 형태 사이의 관계도 희미해지며, 동시에 의미론적, 화용론적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7) ‘고양/고향, 지양/지향, 영향/영양, 위협/위엄, 실현/시련’에서 보듯이 탈락이 되면 대립이 중화되어 청자의 이해가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을 통하여 초등학생 화자들의 발음에 나타나는 음운 변이형에 대한 사회적 분화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어두 경음화, 유기음화, 위치 동화, /ㄷ/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등에서 나타나는 변이형들이 말투, 성별, 연령, 사회 계층과 같은 사회적 변수와 어떠한 체계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1) 어두 경음화는 수의적인 현상으로서 언어 외적인 요인인 화자의 심리적인 면이 작용한 결과이다.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여학생 화자보다는 남학생 화자에게서, 사회계층은 낮을수록, 또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어두 경음화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학년 남학생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 집단에 수용되고자 하는 유대감, 혹은 남자답게 보이려는 남성다움의 표현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유기음화는 매우 보편적인 국어의 음운 현상이다. ‘만형’을 제외한 나머지 어휘에서 90% 이상 높은 유기음화 실현율을 보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남 방언에서 유기음화의 실현율이 매우 낮게 보고되어 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강희숙, 1994). 이러한 사실은 학습에 의한 표준어의 영향으로 방언형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투와 크게 관계 없이 골고루 높은 실현율을 보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남학생 화자보다는 여학생 화자에게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조금 더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3) 위치 동화는 수의적인 동화로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도 예외 없이 일상적인 발화에서 86.9~100%로 높은 실현율을 보였으나 ‘감기’만은 23.7%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치경음의 양순음화나 연구개음화보다 적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치 동화는 격식성의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

단어 읽기 말투와 일상적인 말투에서 보이는 실현율의 차이가 매우 컸으며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또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실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계층과 위치 동화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로써 위치 동화는 비표준적인 발음이기는 하나 일상 발화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ㄷ/ 구개음화에서는 구개음화, 마찰음화, 말음 중화 등의 여러 규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변이의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격식성의 정도와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비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음운 현상들에서 격식적일수록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다른 양상이다. /ㄷ/ 구개음화에서는 특히 마찰음화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마찰음화의 실현은 약화 현상으로서 조음 시 힘을 덜 들이려는 노력 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구개음화 실현율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음운 현상들에서 대체로 여학생들의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유기음화에서는 오히려 여학생들의 실현율이 낮았다. 낮은 유기음화의 실현율은 곧 마찰음화로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마찰음화’라는 개신에 여학생이 더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5)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짧다, 짧다’를 제외한 다른 어휘의 표준 변이형 실현율이 3.9~30.3%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같은 환경에서도 탈락되는 자음이 다른 이원적 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규정 때문에 화자들이 매우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화자들은 탈락되는 형태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뺨지’의 경우는 96.1%가 [밭찌]로 실현함으로써 [밥찌]의 준수는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아주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남학생 화자에게서 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계층별로는 어휘에 따라 실현율이 높거나 낮은 계층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6) /ㅎ/ 탈락에서 /ㅎ/의 수의적 탈락은 화자의 말투가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남학생 화자에게서 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은 높을수록 낮은 탈락률을 보임으로써, 교육에 의해 교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수의적 탈락은 발음을 쉽게 하려는 노력 경제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나, 음성 언어의 변화가 기호 체계의 혼란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도가 요망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분석한 음운 변이형들의 실현 양상을 볼 때, 대체로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울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 화자보다는 남학생 화자가,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비표준 변이형의 실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 성별, 사회 계층이라는 사회적 변수가 언어 외적 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비표준 변이형의 실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의 국어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과 편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발음 교육 중 음운 현상에 관한 내용으로는 유기음화(3-2), 음절말 중화(3-2), 자음군 단순화(4-1, 5-1, 5-2), ㄴ첨가(5-1), /ㄷ/-구개음화(5-2), 경음화(6-1), 설측음화(6-1), 비음화(6-2)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음운론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발음 교육이라고 할 때, 불필요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편성의 문제다. 물론, 음운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더 효과적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앞마당[암마당]’과 같은 비음 동화는 화자들의 언어적 직관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것이므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감기[감기]~[강기] 등과 같은 수의적인 동화로 인한 비표준적인 발음을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즉,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것은 제외하고 별도의 학습이 필요한 것을

가려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음화’의 경우도 ‘비음화’와 마찬가지로 모어 화자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다.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국어 화자들에게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1학년 때부터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둘째는 방언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 방언은 ‘비유기음’의 실현이 매우 특징적이며, 경상 방언은 ‘ㅅ’와 ‘ㅆ’의 대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방언 화자들의 비표준적인 발음은 해당 지역 방언의 체계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방언이 가지는 음운적 특성을 알고 그것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화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같은 방언권 화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변수에 의해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표준 발음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표준 발음 중에서도 언중들이 가장 많은 혼란을 보이는 것이 겹받침의 발음 문제이다. 겹받침의 발음에서는 환경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다른데도 언중들은 탈락되는 형태를 단일화하고자 하여 현실과 규범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규모의 실태 조사를 거쳐 규범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을 양성하여 그들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방송 매체를 통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시기가 모어의 형성 시기와 일치하므로 초등 교육 과정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어의 표준 발음은 개별 화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 ‘국어 생활을 바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게 한다’는 발음 교육의 목표도 달성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범모(2004),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강창석(1989), “현대 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국어학회.
- 강희숙(1994), “음운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사논문, 전북대학교.
- _____ (2003),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
- 고영근·남기심 (2000),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교육부(2002, 2003), 『초등학교 말하기·듣기·쓰기』, 1, 2, 3, 4, 5, 6학년,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구현옥(1999), 『국어 음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_____ (2000), “국어 변동 규칙 설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제안”, 『한글』 247, 한글학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경근(2005), “국어의 음운론적 세기에 대하여”, 『한글』 270, 한글학회.
- 김경석(1996), “사회언어학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 『응용언어학』 제12호, 한국응용언어학회.
-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 표시와 음운 과정』, 국어학회.
- 김규남(1998), “전북 정읍시 정해마을 언어사회의 음운변이 연구”, 박사논문, 전북대학교.
- 김방한(1986),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글』 제194, 한글학회.
- 김상준(1992), 『방송 언어 연구』, 도서출판 홍원.
- 김선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Ⅱ”,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4),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 국립국어원.

- 김성렬 · 이주행 외(2003), 『언어와 사회』, 역락.
- 김성현(1997), “언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관한 고찰”, 『사회언어학』 5권 2호, 사회언어학회.
- 김영선(2003), “현대국어의 위치동화 현상 연구”,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 김영현(1997), “중학생의 국어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재봉(1993), “사회언어학의 이론에서 본 국어교육”, 『우리어문연구』 제6권 1호, 우리어문학회.
- 김재원 외 역(2001), 『사회언어학』, 박이정.
- 김주원(1997),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29, 국어학회.
- 김차균(1987), “말끝 닿소리때의 단순화”, 『한글』 제196호, 한글학회.
- _____ (1990), “국어 음운론에서 강도의 기능”, 『언어연구』 7, 한국현대언어학회.
- _____ (1998), 『음운학 강의』, 태학사.
- 김태순(2004), “초등생의 표준 발음지도 방안 연구”,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현(2005), “발음 교육에 대한 단상”, 『국어교육학연구』 제24집, 국어교육학회.
- 김혜숙(2004), “사회언어학의 이론과 전개”, 『사회언어학』 제12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_____ (2005), “사회언어학 연구와 국어교육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제 141권, 국어국문학회.
- 김희순(2006), “사회 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대학 진학 포부와 교육적 지원”,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리의도(1999), “우리 말글살이의 현실 문제에 관한 종합적 연구”, 『한글』 246, 한글학회.
- 문양수(2001), “국어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 『인문논총』 제44집, 서울대학교.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제5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_____ (200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제 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1993), “충주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 박동근(2000), “말머리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된소리 현상 연구”, 『언어학』 제27호, 한국언어학회.
- 박영순(1985), “한국복자음 발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문논집』 24, 안암어문학회.
- _____ (2001),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박응임(1988), “사회 계층에 따른 가정 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희석(1989), “현대 독어의 언어 변이 현상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서강대학교.
- 방언연구회(2003),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배주채(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_____ (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_____ (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성호(1991), “언어 변화의 사회언어학적 요인”, 『역사와 사회』 제1권 6호, 국제문화학회.
- 성은현(1997), “여성과 남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다른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권 1호, 한국심리학회.
- 성일호(1989), “사회언어학의 변이에 대한 개념 연구”, 『역사와 사회』 제2권, 국제문화학회.
- 송철의(1996), “표준어, 표준 발음과 국어 생활의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8), “자음 체계와 자음 동화”, 『새국어생활』 제8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신지영 · 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신지영(2004), “공명음 사이의 /ㅎ/ 실현에 대한 음성, 음운론적 고찰”, 『언어』 28권 4호, 한국언어학회.
- 오영애(1999), “보령 지역 중학생의 발음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오정란(1990),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위상”,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 오종갑(1999), “자음 탈락과 영남 방언”, 『한글』 246, 한글학회.
- 유필재(2000), “서울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 윤명숙(1996), “청주지역 중·고등학생의 발음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기숙(1993), “언어 변화와 인간 행위”, 『사회언어학』 제1권,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길재(2004), “곡용과 활용의 어간재구조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나주 지역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12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_____ (2005), “언어변이와 사회계층에 대한 일고”, 『한국언어문학』 제55집, 한국언어문학회.
- 이미재(1988), “언어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 _____ (1989),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수원대학교 논문집』 제7집, 수원대학교.
- _____ (1993), “된소리 현상의 새 분석”, 『말소리』 25권 1호, 대한음성학회.
- 이동석(2002), “국어 음운 현상의 소멸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학교.
- 이문규(1999), “음소 ‘ㅎ’과 유기음화”, 『언어과학연구』 제16호, 언어과학회.
- _____ (2000), “발음 교육의 개념과 방향”, 『어문학교육』 22, 한국어문교육학회, 고려대학교.
- _____ (2004),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수연(2005), “곁받침 체언의 표준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승규(2004), “여주지역어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사논문, 충북대학교.

- 이승복 역(2001),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
- 이운경 ·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제26권 3호, 한국아동학회.
- 이은희(2002), “사회언어학과 국어교육”, 『사회언어학』 제10권 2호, 이중언어학회.
- _____(2003), “문법 교과서와 사회언어학”, 『이중언어학』 제23호, 이중언어학회.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정복(1993),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사회언어학』 제1권,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종훈(2002), “학부모의 사회 계층에 따른 초등학교의 사교육 실태 분석”, 석사논문, 경상대학교.
- 이종희(2003), “초등학교의 국어 표준 발음 오류 실태 조사 연구”, 석사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제7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진성(2001), “한국 대학생들의 맞춤법 오류 실태”, 『사회언어학』 제9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진호(2004), 『언어학의 이해』, 역락.
-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이혜원(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3”, 국립국어원.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이홍수 외 역(2005),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피어슨 에듀케이션코리아.
- 전혜숙(2003),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사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 전혜영(2004), “남자와 여자의 언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제14권 4호, 국립국어원.
- 정수희(1999), “현대 국어의 /ㅎ/ 축약과 탈락 현상의 제약 연구”,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성문(2000), “최적성이론에 의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의 방언 차이 분석”, 『사회언어학』 제8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조숙자(1996), “인지 능력의 발달과 성차”,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_____ (1997), “수리능력의 발달과 성차에 관한 모델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권 1호, 한국심리학회.
- 조현숙(1994), “중학생의 국어 발음 오류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차경애(1997),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아동의 인지능력의 발달”, 『사회언어학』 제5권 2호, 사회언어학회.
- 최명숙(1992), “언어와 사회 계층”, 『영어교육연구』 제12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최명옥(1998),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 최성윤(2003), “국어의 여성 언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석사논문, 계명대학교.
- 최정미(2004), “초등학교 국어과 발음 지도 연구”, 석사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한경호 · 기세관(2002), “여수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과학과 교육』 제10집, 순천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 한성일(2005), “사회언어학 연구”, 『한말연구』 제17호, 한말연구학회.
- 한재영(2003), 『한국어 발음 교육』, 한림.
- 허웅(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홍두승(1982), “경제 발전과 사회 계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연구협의회.
- 홍명식(2002), “초등학교 표준 발음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안양대학교.
- 홍미주(2003), “체언 어간말 (ㄷ), (ㅌ)의 실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제11권 1호.
- 황행문(2000), “사회 계층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열 연구”, 석사논문, 제주대학교.
- W. Labov(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in English in New York City",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부록(1) - 단어 읽기 말투, 문장 읽기 말투, 면담 말투 관찰용**

1. 다음의 단어를 읽어 주세요.(단어 읽기 말투)

공짜, 꽃감, 닭다, 당긴다, 족제비, 조끼
육학년, 곱하기, 정직한, 입학, 만형, 솔직하게
거짓말, 감기, 냇물, 안경, 인기, 연필, 신문
머리술이, 햇별이, 끝이 해돋이, 살살이, 만이
밟지, 째다, 늙다, 읽다, 젊다, 밝다, 맑지
은행, 마흔, 시험, 비행기, 손해, 아홉

2. 다음 글을 자연스럽게 읽어 주세요.(문장 읽기 말투)

옛날 옛날 금강산 산기슭에 나이가 마흔이나 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
았다.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홀어머니는 밭을 가꾸었어. 어머니
는 밭에 고추를 심어서 김도 매고 흙이 빗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북을 돋우어 주었
지. 어머니와 아들은 가난하였지만 절대로 공짜로 무얼 바라거나 하진 않았어. 햇
별이 따뜻한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뛰어 왔어.

“나무꾼님, 나무꾼님, 저 좀 숨겨 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하는 거야. 나무꾼은 얼른 나뭇짐 속에 사슴을 꼭꼭 숨겨 주었지. 혹시라도 사슴의
꼬리 끝이 보이면 안 되니까 말이야. 조금 있으니까 사냥꾼이 오더니 나무꾼에게
물었어.

“이리로 사슴 한 마리 지나가는 것 못 보았소?”

“저쪽 숲으로 가서 살살이 뒤져 보세요.”

정직한 나무꾼이었지만 거짓말로 숲 속을 가리켰어. 사냥꾼이 지나간 다음 사슴이
말했어.

“밝다(밝디) 밝은 달이 뜨는 날, 하늘에서 선녀들이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겁니다. 선녀들이 날개옷을 벗어 놓으면 제일 마음에 드는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세요. 그러면 그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갈 테니 색시로 삼으세요. 그렇지만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 주시면 안돼요.”

나무꾼은 사슴이 시키는 대로 했어. 바위 뒤에 숨어서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무릎이 다 아팠어. 드디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 나무꾼은 값이 비싸 보이는 날개옷을 조끼 주머니에 숨겼어. 이윽고 새벽이 되어 닭이 울었어. 선녀들은 서둘러 하늘로 올라갔어. 하지만 옷이 없어진 선녀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 울기 시작했어. 나무꾼이 다가갔어.

“우는 까닭이 무엇이요?”

“날개옷이 없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는 나무꾼을 따라나섰어. 해돋이가 시작되기 전에 집에 도착했어. 늙다(늙디) 늙은 어머니는 젊디(젊다) 젊은 선녀를 반갑게 맞았어.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 밥상을 차려 선녀에게 주었어. 나무꾼과 선녀는 결혼을 했어. 선녀는 손해를 보는 기분이었겠지?

장가를 든 나무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가끔씩 꽃을 꺾어 와서 선녀에게 주기도 했지. 부지런한 선녀도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깨끗이 해주고 품삯을 받아오곤 했어. 또 그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품삯으로 돈을 받으면 항아리에 넣어두곤 했어.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지.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는 머리술이 아주 까맣어. 첫째를 만이라고도 하지. 첫째는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어. 그리고 서당에도 다녔어. 서당에서 시험을 보면 항상 일등을 하곤 했어. 집에서 천자문을 읽다가 심심하면 냇물에 가서 첩병첩병 물장난을 하기도 했어. 글씨는 연필 대신 붓으로 썼겠지? 새로운 소식은 신문이나 방송 대신 시장에 가야 들을 수 있었어.

첫째 아래로 둘째, 셋째가 태어났어. 아이들은 모두 감기에도 한 번 안 걸리고 무럭무럭 자랐어. 첫째인 맏형은 동생들을 잘 돌보았어. 서당은 입학하기도 전에

동생들에게 벌써 곱하기를 가르쳤지. 그런데 맏형은 눈이 좀 나뻐나 봐. 지금처럼 안경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바로 꽃감이었어. 나무꾼은 세 아이들을 위해 비행기처럼 생긴 장난감을 나무로 깎아 주었어.

짧다(짧디) 짧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나무꾼과 아이들은 산짐승을 잡으러 다녔어. 산으로 가기 전에 나무꾼은 단단히 타일렀어.

“애들아, 덧은 위험하니 덧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활시위를 당길 때는 뒤로 힘껏 당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리고 계곡물이 맑지 않을 땐 아무리 목이 말라도 먹지 말아라.”

가끔 족제비를 잡거나 토끼를 잡는 날도 있었지.

첫째가 지금으로 말하면 육학년, 둘째가 아홉 살이 된 어느 날이었어. 선녀가 마루를 뒹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

“여보, 이제 제 날개옷을 어디에 숨겼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3. 다음 문장에 들어갈 단어를 말해 주세요.(연담 말투 / 그림을 보여주거나 동작을 취함)

- (1) ○○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 그냥 주는 것
- (2) ○○이라는 놈이 호랑이인 나보다 더 무섭구나. - 감을 말린 것
- (3) 빗자루로 깨끗이 쓸고 걸레로 ○○.
- (4) 그네를 태울 때는 앞으로 밀고 뒤로 ○○○.
- (5) ○○○는 지독한 냄새를 풍겨서 적을 물리치지요. - 붓을 만들기도 해요.
- (6) 추울 때 겉옷 위에 입는 팔이 없는 옷을 ○○라고 한다.
- (7) 오학년 을 마치면 ○○○이 된다.
- (8) 내 동생은 구구단을 못 외워서 ○○○를 못한다.- 더하기, 빼기,
- (9) 링컨은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을 깨뜨리고 사실대로 말한 ○○○ 소년이였다.
- (10) 내년이면 내 동생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우리학교에 ○○한다.

- (11) 삼형제 중 첫째를 맏이 혹은 ○○이라고도 한다.
- (12) 잘못을 저질렀을 땐 ○○하게 말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 (13) 양치기 소년은 ○○○을 하는 바람에 양을 모두 잃었다.
- (14) 겨울이 되면 ○○에 걸려 쿵쿵쿵쿵 기침하는 사람이 많다.
- (15) 송을 진 당나귀는 일부러 ○○에 빠졌다.
- (16) 눈이 나쁠 때 쓰는 것은 ○○이다.
- (17) 요즘 가장 ○○ 있는 가수는 동방신기이다.
- (18) 고등학생은 볼펜으로 초등학생은 ○○로 글씨를 쓴다.
- (19)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어린이 동하는 ○○ 이름이다.
- (20) 갓난 아기는 ○○○이 적다. -머리카락
- (21) 봄에는 ○○이 따뜻하다. - 해의 별
- (22) 어머니의 사랑은 ○이 없다.
- (23) 1월 1일이 되면 우리 가족은 ○○○를 보기 위해 무등산에 오른다. - 해가 돋는 것
- (24) 경찰관이 도둑을 잡기 위해 온 동네를 ○○○ 뒤졌다.
- (25) 형제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라고 한다.
- (26) 비좁은 차안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27) 소인국의 사람들은 손가락 길이도 ○○. - 길다의 반대말
- (28) 젊지 않고 ○○. - 젊다의 반대말
- (29) 책을 소리내어 ○○.
- (30) 늑다의 반대말은 ○○.
- (31) 보름달은 가장 크고 ○○. - 어둑다의 반대말
- (32) 뽕물이 ○○ 않으면 아랫물도 맑지 않다.
- (33) 저금을 하려면 ○○에 가야한다.
- (34) 열, 스물, 서른 다음에는 ○○.
- (35) 오늘 수학○○에서 100점을 받았다.
- (36) 라이트 형제는 ○○○를 발명했다.
- (37) 4개에 천 원하는 아이스 크림을 1개에 천원을 주고 샀다면 ○○를 본 것이다.
- (38) 여덟 다음에는 ○○이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국문학과	학 번	20027005	과 정	석사, 박사
성 명	한글: 박정자 한문: 朴 貞 子 영문: Park Jeongja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무등파크 2차 203동 2201호				
연락처	016-621-0240	E-MAIL	jj2790@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국어 음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영어 : A Sociolinguistic study of Korean Phonological Varia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년 월 일

저작자: 박 정 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